東亞日報
今日八面
購讀料 一個月金九十錢 六個月金五圓 一個年金十圓 地方必要先金 / 廣告料 五號活字行 ... 特別 ...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 印刷人 趙宜淳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三八番地 株式會社東亞日報社 電話光化門 ... 振替口座京城二五五〇番

嚴寒을압두고

一

겨울이온다 찬눈과매운바람이거리와 村家를가치襲擊한다 本報昨紙報導에依하면 市內某處에서 이미凍死人이낫다고한다 樺太와九州地方에서는 風雪로因하야 人命의死傷이만타하는데 그風雪이未久에朝鮮을襲擊할것도死치못할일이다이때를當하야문득생각나는것은집업고헐벗은同胞들이니京城市內만하야도年年히凍死者가 多數에오르는것을 目睹하거니와全國을計上하면 놀날만한數爻에達할것이다 이런事實이잇는同時에一方으로는 錦衣를두르고美食을飽하야 歡樂의極을다하는時節도이多節이다 그러함은아니라하더라도 或은耶蘇誕日을祝하며 或은送舊迎新의歡을交하거爲하야 種種의宴席이버려지는것도 이多節이다

二

너도사람 나도사람이면서엇지하야 하나는暖衣飽食하고하나는凍死를不免하는가 動物의社會에서라도 부즈런히힘쓰는者는 먹을것이잇거늘 萬物의靈長이라는 人類의社會에서는 죽도록일하되 먹을것이업고입을것이업는사람은 巨富가되니이엇진理由인가 우리는이事實을너무나잘안다 그原因이社會組織의 缺陷에잇다할도 우리는잘안다 京城만그러하랴 인朝鮮이 그러고 全世界가 그러한것이다

三

그러나우리는이것을社會組織의罪라하야 凍死하는同胞를袖手傍觀할것인가 그病源의根本的改革도 우리의힘을입이오當場의救急手術도 使用하여야할것이다 西洋各國에잇서서는 耶蘇誕日이 救濟事業의조흔時期가된다하야 치寒이 始作되는節期요이때를當하여는男女老幼가期約하고「선물」을주는것으로일을삼는다 親舊間에交誼를厚케함도잇스려니와 며욱이업는同胞를爲하야 즐겁게 너그럽게 주머니를열어버리는時節이다 이때로서 사람과 사람사이의「人類愛」를 입으로만말고 實地로表現하게된다 基督敎의여러가지敎俗中에 본바들것이잇다하면 이것이야말로본바들만한것이다

四

朝鮮의古來名節을차즈면冬至가잇고또새로輸入된洋曆新年이가外와잇다 冬至도집집이 먹을것을準備하고 지히는날이오 新年도주고밧기에 奔走한때다 「크리스마스」가其實 冬至節의宗敎化임은 만흔學者가主張하는바어니와 朝鮮의 冬至節을救濟事業에主力하는 名節을만들수업슬까 朝鮮人은過去에社會生活의 여러가지方式에다뒤떠러진中에도患難相救의精神도缺乏하엿슴을 否認할수업다 며욱이 近年의 個人 主義的思想의 잘못된波瀾에依하야더욱이京城가튼 都會地에잇서서 救濟事業等이 活氣를띄지못하는것을 우리는遺憾으로생각한나 孤兒院을經營하는 某外國人이그事業에對하야 朝鮮人의態度가冷淡하다批評하는것을듯고 우리는寒汗이背에흐름을깨닷는일도잇다 어쉬나업는것을 닷하라 업는것을논흐는것은더욱아름답지아니하나

五

冬節은다시왓다 우리는「크리스마스」捐補를當할때에 救濟委員의訪問을當할때에 주기를아서지말자 그리하야우리의個個의맘의「人類愛」의 더운비츨 한번더밝커보자 그러고나서其後에社會相을熟視하여도 느즐것업다

赤露의積極對中策
反幹部派復活과注目되는人物配置
南軍優勢로強硬策에還元

黨則無視、幹部倒壞의陰謀가發覺되야去十月下旬全露共產黨大會의決議에依하야政治部委員의資格을罷免된「트로츠키」「지노비에프」「카메네프」의諸氏가最近에至하야 再次勞農政府의行政及外交의重要椅子를占하게된事實은(旣報)過般의內訌이露國의國策上에何等의變動을齎來치아니한實證으로世界의視聽을集中한바이지마는從來勞農露西亞政府의 取하던對中積極的政策은今春國民軍의失脚과同時에一大頓挫를生하야「카라한」大使도北京을撤去하고以來形勢의推移를注視하던바最近廣東軍의武漢進出과同時에四圍의情勢가益益自國에有利하게展開됨을따라再次從前의積極的強硬政策으로還元하려고盛히陣容을곳치기에 努力하는貌樣이다今番「카라한」氏를極東次官에任命하는同時에前陸軍次官「라시에리-쉬」氏를東中鐵道副理事長에任命하엿다「라」氏는去七月의內紛時「지노비에프」一派를糾合하야莫斯科郊外에서秘密會議를開한反幹部派의巨頭이나勞農幹部가如斯한重大人物을拔擢한것은同氏의把持하는對中強硬政策과其手腕이勞農露西亞의極東政策遂行上에必要한外닭이라볼수밧게는업다그리고同氏는目下北京에잇는勞農代理大使「체르니히」氏에匹敵한다稱하며世만아니라獸獸히所信을斷行하는實의人物이라함으로今番에뽑政된陣容이야말로相當히무섭다볼수잇다 特히最近廣東軍과呼應하야馮玉祥氏의國民軍이漸次擡頭하는形勢를示한事와對照하야勞農露西亞의今後極東政策은注目에値하더라

拘禁店員 釋放을要求 蜂谷總領事

中國官憲이二日午後奉天日本人經營錢莊의中國人店員을不法拘禁한事件에關하야蜂谷總領事代理는三日付로써奉天當局에嚴重한抗議를提出하고拘禁店員의釋放을要求하엿다더라(奉天四日發)

期於赤軍과戰鬪 安國軍副司令 就任席上孫氏盟誓

孫傳芳氏는四日午前十時文武百官을一堂에集하고安國軍副司令의職에就한바其席上余는最後의一兵이盡할때까지赤軍과戰하야浙江이赤土로化하지안케하겟다고盟誓하엿더라(南京四日發)

上海近近變革? 左傾學生盛히活動

上海某洋人의談에依하면目下上海左傾派學生等은上海의獨立及此에關連하는罷業問題等에對하야目下盛히活動中으로五日의市民大會는一週間을延期하게되엿스나其間每日蹤演隊를派遣하야宣傳에努力하기爲하야搖籃이百出한바近近變革이勃發할것이라하야各方面에서警戒中이더라(上海五日發)

曖昧한商船打擊

三日夜부터小銃彈其他의武器를가진學生團數十名及中國兵若干은大阪商船出張所를包圍하엿는데四日午前八時同社에向하야射擊을開始하고數名의學生은事務所에闖入하야一名의死體를서내여市中을돌앗다右는周密人의探偵長으로잇던者가商船에避하얏슴으로商船은曖昧한打擊을바든것이다建物等에도不少한損害를受하엿더라(上海五日發)

福州에南軍一萬 日陸戰隊居留民保護로上陸

福州는昨今學生團의橫行이甚하야警察力은皆無하게되고市內의秩序는紊亂하야全혀無政府狀態에陷하엿슴으로日本海軍은居留民을保護키爲하야三日夜六時上陸하엿스며又廣東軍一萬도五日午後入城하엿다더라(上海五日發)

中國은自力解決 駐米中公使談

駐米中國公使施肇基氏는四日紐育에來着하야新聞記者에左와如히語하엿더라(紐育四日發)

中國은數年內에自力으로써國內問題를解決할수잇다云云

張氏에一切一任
吳佩孚氏依賴狀送附 張氏入京은楊氏來津後實現

田中玉一行은吳佩孚氏自筆의親書를携하고四日歸津하야張作霖氏에復命한바右親書內容은政治나軍事나一切를擧하야張氏에게一任하고決코不服을不唱하겟다는것이다이로써張氏의北京은楊宇霆氏의來津을待할뿐으로되엿다더라(天津五日發)

各公使에求諒解 外交次長特派

張作霖氏는外交次長王蔭泰氏를英、米、佛各公使館에特派하야安國軍組織에關하야詳細히說明하게하는同時에諒解를求하얏더라(北京五日發)

孫傳芳氏 安國軍副司令 三日에通電

孫傳芳氏는去三日로써通電을發하야明四日安國軍副司令兼五省聯軍總司令에就任할旨를宣言하얏더라(奉天五日發)

露積極援南으로 英은援張制南?
借款交涉은日本에對抗策

吳佩孚와의不統一과楊宇霆의諫言으로一時消極的態度를取하게되엿든張作霖이突然安國總司令으로就任하게되고近近入京한다함에는英國의新對中政策이關聯되여잇다한다卽前駐中公使「맛트레-」氏가歸國後新參事官「오마리」氏는新公使「라푸손」氏着任까지에對中新政策樹立에對한準備를急히하는中인데그所謂新方針의眼目은最近念念擴大되는南方勢力과는될수잇는대로衝突을避하야 旣得權維持策을圖하는一方張作霖、孫傳芳等의南方勢力對抗에對하야 後援하라함에잇다는바去月末天津英租界內에逃避한國民黨員十四名을奉天官憲에게引渡한事와在中英財團이東方新銀公司의名義로五百萬弗을出金하야 北方軍閥을援助하려하는等計劃은這間의消息을傳하는바이다 廣東政府承認論을率先하야提唱하든英國이如斯한新對中政策을取함에는理由가잇다卽最近勞農露國의廣東軍積極的援助關係로設或廣東政府를承認한다할지라도旣得權은 喪失될形勢임으로北方軍閥援助로南軍을牽制하야어데까지든지旣得權을擁護하려함이其一이고又前番天津會議席上張作霖이從來와如히東三省이日本의資本만引用하다가는日本의勢力에牽制될念慮가有함으로今後는다른外國資本을借入할意嚮이라고述하엿슴으로英國은此를機會로日本에對抗하야北方도投資하려함이 其二이다 要컨대張作霖이斷然中央進出하게된것은英財團의援助를豫想함이고英國이此等軍閥을援助함은日本에對抗하야北方에도勢力을扶植하려는野慾과廣東軍에對하야赤露가積極的으로援助하게된外닭이라더라

自然化學研究 設立委員會

東方文化事業의上海自然科學研究所設立에關하야日中兩國委員은五日午後日本委員의宿所인「아스타•하우스」에會合하야會議에關한協議會를開한바中國側委員은吳連德其他九名으로六日부터本會議를開할터이라더라(上海五日發)

東三省治安維持는 吳、楊兩氏가擔當
吳氏妥協次近赴津

張作霖氏는黑龍江督辦吳俊陞氏를留守總司令으로楊宇霆氏와共히東三省의治安維持에任하기로決한바吳氏는此를妥協키爲하야近近再次天津에赴한다더라(奉天四日發)

廣東政府承認說
英公使赴任途中向漢口 實質的承認은交涉?

赴任途中에滯在中이던新任駐中英國公使「라프손」氏는四日發南京經由漢口로向하엿는데右에對하야當地外人側에서傳하는바에依하면廣東革命軍의長江進出에作하야英國은對中政策更新의必要를認定하고漢口에서南方首腦者와會見하야意見을交換하고形便에依하야는實質的으로南方政府를承認할交涉에入할지도未知라더라(上海五日發)

炭坑罷業問題로 英勞働黨憤起
◇政府彈劾案提出

英國勞働黨은首領「맥도날드」氏를提案者로下院에政府彈劾案을提出하고來十二月八日의本會議에上程討議할旨를通告하엿다同案은去五月一日以來七個月餘에亘하야英全國에서行한未曾有의大炭坑罷業中政府의取한政策을亂彈하고政府는昨年九月以來巨額의費用과半歲餘의時日을費하야調査케한「사뮤엘」炭坑調査委員會의報告를無視하야最初의警告를수지로맨들어그것을實行치아니할뿐아니라炭坑主에加擔하야偏頗한取扱을하야炭價의調節을行치아니하고跋扈하는대로내여두엇스며且坑主側要求에應하야坑內八時間勞働法을通過케하야爭議를延引케하는同時에益益深刻케하야써結局力盡하야暴虐에抵抗할수업게되엿다坑夫에對하야極히苛酷한勞働條件을受諾치아니할수업게되엿다는旨를述하고如斯히하야政府는充分히彈劾을受할만하다고斷言하엿다그리고更히坑夫로하야금相當한生活標準을維持하고生活維持에必要한賃銀을得케함에는只今炭坑을國有로하야大改造를施할수外에方途가업다고論하엿더라(倫敦電)

土伊兩國接近

「콘스탄티노플」特報에依하면最近土耳其와伊太利의接近은非常히促進되는바土、伊銀行의設立計劃又他에土가通商上의利權을伊太利에許與할提案이잇는것은接近의證左라고할것이라더라(나우엔四日發)

前羅皇太子 歸還實現?

羅馬尼亞皇后의亞米利加에서接待한것은우수운일이만허서寧히그感情을害한바甚하다하는者잇서「브카레스트」官邊에서는痛切히物議를釀成하야皇后의御歸還後責任者를處罰한다는說外지잇다如斯히物議를釀成한結果前皇太子「카롤」殿下가「브카레스트」에歸하는것이事實로서實現할는지도不知한바「카롤」殿下는實力으로써王位繼承權을回復하기를目的으로하고陰謀等에는參加하지안키를「안겔스」將軍에게約束한後父王을訪問하려고許可를求할것이라고報하더라

墺地利國債 總額廿五億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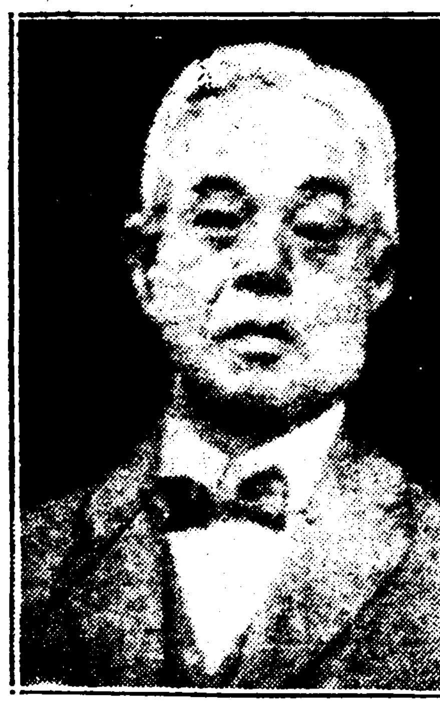
維也納에서發表한政府의公表에依하면本年末同國의國債總額은二十四億七百五十萬志로昨年보다七千八百萬志의減少를見한것이다그러나來年度의豫算에는增稅를할듯한데卽本年의總租稅額七億四千三百十萬에서八億六千七百六十萬으로增收를圖할터이라더라(나우엔四日發)

伊國共產黨員 四十三名被逮
重大計劃發覺結果

共產黨員四十三名은逮捕되바右는엇더重大計劃이發覺한結果이라고報하며關係文書若干도押收하엿다더라(베로나五日發)

前墨統領被逮

墨西哥前大統領「데라•멜라」氏와恰似한墨西哥人이米國「타스칸」에서中立法을侵犯하야墨西哥革命의陰謀를計劃하얏다는嫌疑로米國官憲에게檢擧되얏슴에對하야墨西哥領事는四日抗議를提出하얏더라(타스칸四日發)



社會民主黨 綱領及政策

右派中心인社會民主黨이五日에結黨式을擧行하엿다함은昨報하엿거니와其綱領政策은左와如하더라(東京電)

◇綱領

一、吾等은勤勞階級本位의政治經濟制度를建設함으로써健全한國民生活을樹立하는것이라고確信하고此實現을期함

一、吾等은資本主義의生產並分配方法에健全한國民生活을阻害하는者잇다고認定하고合法的手段에依하야此改革을期함

一、吾等은特權階級을代表하는旣成政黨並社會進化의過程을無視하는急進主義의政黨을排斥함

◇政策

一、普通選擧制의徹底
二、議會制度의改革
三、言論集會結社의自由를抑壓하는諸法令의改廢
四、軍制의改革
五、財政及稅制의根本改革
六、行政機關의改革
七、教育制度의根本的改革
八、重要產業의社會化
九、土地制度의改革
一〇、勞働立法의完成
一一、小作立法의完成
一二、俸給生活者保護法의制定
一三、女子差別待遇의撤廢
一四、社會的施設의徹底

◇黨首安部磯雄氏

◇東亞漫畫 投稿歡迎 薄謝贈呈

배꼽이 배(腹)의十倍!

朝鮮民族 更生의道 (五七)
生氣振作—理想樹立—更生確信—不斷努力

文學士 崔鉉培

第二는經濟的頭腦를鍛鍊하자 우리朝鮮사람은모든일을經濟的으로打算하야 處理하는經濟的頭腦가不足하다(近來에와서는月給의額員으로써남의人格의高下를品定하라는 奇怪한現象도업지아니하지마는 이것이決코經濟的商量에밝은것을보임은아니다)이는물론現代文化의輸入된것이느진탓도 업다고할수는업지마는 아모리하드라도 우리가利害打算 收支相較에疎遠한것은事實이다 우리의日常生活方式이甚히不經濟的인것이만컷마는 이것을改良할用神이업시 다만慣習을墨守하야時間과金錢을虛費하는것이만타 一家의家長은歲入計出의 私經濟의原則을無視하고 恒常支出超過의生活을繼續하기를尋常히녀인다 그럼으로 그에게는貯蓄할餘裕가업스며 非常時에對한準備가업다 그財產의多寡를勿論하고收入以內에서生活하는家庭은 비록現在에는困窮하드라도未來에는 반드시向上의餘望이잇겟지마는 萬若收入이恒常不足을告하는家庭은 비록現在의生活이 아모리풍풍하드라도將來에는 반다시貧窮이來訪할것이다 이는私經濟의原則이다 그러한데 現今朝鮮에서收入以內에서生活하고도 多少의餘裕를가지는家庭이 모다몃戶나되는가 우리가爲先自己를爲始하야親戚과友人과洞里人의家庭生活의經濟狀態를觀察하건대 이러한合理的家戶가넘어적음을痛覺하지아니할수가업다

어쇠家庭生活뿐이리오 다른社會的經營에잇서서도 恒常利害打算 收入相較에疎遠한때문에畢竟有始無終의事業이 얼마나만흔가 人間事業은다만始作만으로 그本旨가達成되는것이아니라 繼續이잇스며結果가잇슴으로하야 비롯오그遠大한目的을일우는것이다 다만始作하기에만燥急하고 繼續하기에對한計劃과誠力이不足하다하면 이는作事의方策이아니니 엇지成功의餘望이잇스리오 나도勿論今日의우리가艱難에處하야經綸을하고자하니 每事가恒常前道가多難함을안다 그럼으로多少의冒險이업스면 아모事業도經營해볼수가업슬것도안다 그럼으로 그危險을무릅쓰고도모든艱難과苦鬪하다가 畢竟에는慘敗途地하는勇者에게對하야는多大의同情을하기를앗기지아니한다 그러치마는 그것으로滿足하여서는안될것이다 우리民族의生命은永久한것이다 우리는이生活을長久히繼續發展할것을圖謀하여야할것이다 暫時에는閃光도勿論그一時的照明에아조效果업는것이아니지마는 이閃光的照明으로만은到底히民族의久遠한將來를救할수업는것이다 久遠한將來의發展은努力의繼續을要하며 事業의持久를要한다 우리는이持久戰에堪耐할만한事業을經營하도록 經濟的頭腦를鍛鍊하여야한다

現下우리民族의經濟的狀態가甚히危急에處하엿다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모다困窮의極에싸지엇다 이貧窮의暗黑을打破할 太陽이잇서우리의勞力을 待치아니하고라도 써가되면 저길로올라와서 坊坊曲曲의家家戶戶에 恩惠롭은照耀를줄것가트면 우리는가외의憂慮와 鍛鍊을힘쓸必要도업겟지마는 事理는그러치아니하다 우리貧窮의暗黑을打破할이도 우리自身밧게는업슴이 明白하다 우리는이現在의貧窮을打破할때까지는 貧窮과 싸화가면서라도 貧窮을익여가면서 살아가지아니할수업다 우리는人類文化의永遠한發展性을밋는다 그럼으로社會制度의合理化의可能性을밋는다 그러나즐인입만벌이고감나무밋테누어서 紅柿의제절로떨어짐을 기다리는수는업는것이다 우리는쑤준히努力하여야勇敢히奮鬪하여야할것이다 그러기爲하야우리는扶持하여야만한다 어떠케하여야우리의生活을扶持하여 갈수가잇슬고? 이것이우리의民族的愛護의집흔自覺과 經濟的頭腦의밝은鍛鍊을要하는處이라한다

前獨帝代理人辭職

獨逸前皇帝의一般代理人『폰벨의』氏는『호헨촐렌』家와『프로이센』間의近者의財政的解決에關하야意見相違가잇서辭職할意思가잇다고報하더라(倫敦發)

佛伊國境에 佛軍隊增派
地中海艦隊도增派

倫敦에서의報道에依하면佛、伊國境에잇는佛蘭西軍隊는最近一層增加되고且佛蘭西의地中海艦隊도大西洋艦隊에서數隻의增派를得하야優勢로되얏다더라(나우엔四日電)

政本提携 不充分하나 但部分的으로

政本提携問題는去月二十日後藤田中兩者의會見時後藤子로부터床次總裁의發書를田中總裁에提示하엿던바田中總裁는提携할政策은三個條라도조코나其三個條에對하야는今日에이미兩黨의意見이一致하면議會가始作한後에말고今日에即時委員을設定하야其範圍內에서具體的提携를圖하면조흘줄안다此點에子의首肯할수업다는意味의回答을하엿슴으로後藤子는其意味를更히床次總裁에傳할것을約束하고當日高知縣下의遊說에出發하엿다此後政友會側에서는床次總裁의發書라는것은極히徵過的임으로이런것가지고는又昨年七月의提携聲書와同樣으로아주議會에臨하는時期가되야再次茶話文이되고世上의嘲笑를招하게될것임으로此以上의交涉은停止함이조타는強硬意見이만하엿스나最近本黨側의提携論者의立場도考慮하야그대로하여도조흠으로如何間承認하면如何하나는意見도相當히有力하게되엿다따라서政友會에서도結局後의發展은其히豫想的의것이나從來의曲折을바리고虛心坦懷로보면文面은極히當然한것이며別로反對할만한것도아님으로그것에얼마던지色採를加味하야承認하여두고議會에서部分的提携를進行하는中에更히雙方의意見이接近되면提携의內容을充實하게進行하기로하는것이조타고될듯함으로五日夜歸京한後藤子가更히床次總裁와會見하야此에對한床次總裁의意嚮을聽하고正式으로田中總裁로부터의回答이잇스면今回의提携는玆에不充分하나마一次는成立하게될듯이觀測되더라(東京電)

勞働代表는 鈴木文治氏
議會解散際는久能氏

明年五月二十五日부터『제네바』에서開催되는第十回國際勞働會議에는各國에서派遣될勞働代表는來年一月三十一日에決定될터인데右에對하야海軍官業勞働組合聯盟에서는一月二十日頃까지에佐世保에서聯盟會議를開하고態度를決定할豫定이며目下勞働代表로聯盟部內에가장有力하기는鈴木文治氏이나議會가解散되면鈴木氏는社會民主黨으로부터候補者로出馬할터임으로其時에는久能氏를勞働代表에推하기로廣工廠에서는決定하엿더라(東京電)

農民組合 中央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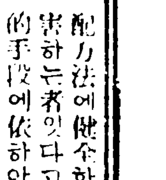
無產政黨에對한態度決定의重大問題를議할農民組合中央委員會는五日午前부터大阪市稻荷町黨本部에서開催할豫定이엿든바杉山委員長以下數名의參集을見하야私談的協議에時間을消費하고밤에야開會하엿다參會者는全部組合將來의方針決定에對하야議論하려하기째문에悲痛한顏色이엿는데卽勞働農民黨을어데까지支持할外日本勞農黨과提携할外의左傾派除名問題如何에對하야關東聯合會의處置及大阪聯合會審議를進한貌樣으로總同盟의除名直後의事이기째문에同會의進行은非常히注目되더라(大阪電)

◇消息

◀齋藤總督 七日朝七時四十五分京城驛着
◀湯淺政務總監 十四日頃歸京
◀趙炳玉氏(延專教授) 五日忠南天安本宅에서遭其內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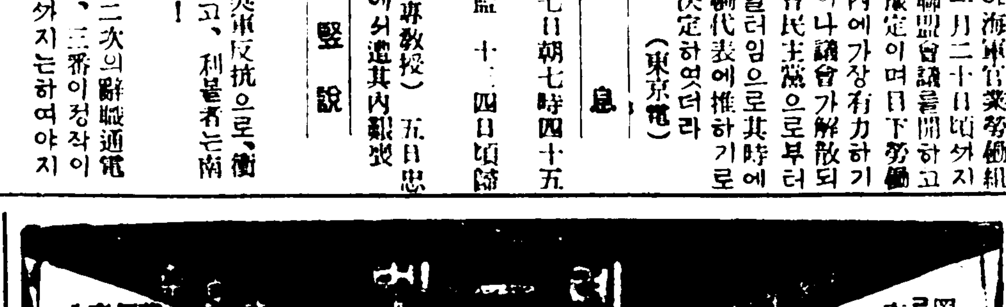
橫說竪說

◇奉軍南下에、吳軍反抗으로、衝突을難免이라고、利害者는南軍뿐일터이지!
◇顧總理는、第二次의辭職通電을發하엿다고、三番이정작이라고、第二次까지는하여야지
◇田中政友總裁의機密費事件은畢竟不起訴될貌樣이라고、若槻首相不起訴의交換條件은아닌지?



가래톳과감창또는년구의매독주에만이난육공육호주사로일시적명의진행만방어하는고로항상재발되는수가만흔바이라이병을주사로근치코자하면막대한비용이들게되며환자중에는비밀히치료코자하야의사를시려하는수가잇슴으로이것을유감으로생각하야의학박사부진선생이우근천의학사와협력하야고심연구한결과내복용육공육호라는내복약제一빈을발견한지라본제는육공육호주사와갓치체내와혈액을깨끗케하며모든세포에신지대사를식이고독혈과독물을제거하는작용이잇는고로가래톳과감창갓흔것은물론이요즁증의이상괴매독또는뇌매독까지라도효과가잇사오니한번시용하야보시압아직본제를알지못하고이병으로신고하시는분은속히오시든지서면으로약재를주문하시면곳보내드리겟나이다
이약으로효력을어든사람의사례상의일부
돈수혜사장 경승 어귀당일익흥왕하심을복망이라 귀당약이제로 가치의피부에 독종을전치하압고 천신이상온하와오년간에지하압던 래긔가유하와 거금삼개월경과하와 기로히하만족이오다 광고에군면 동승만쓰시압 구월이십삼일 창성군대유동 권○○상
(약갑은일호경중용금오원、이호중중용십원、삼호완고용이십원、사용분어원)보내드림때엄중하목상에느어밀송함、선금으로주문하시면송료는이곳에서담당하겟삽
京城黃金町一丁目大通 發賣元 柴崎仁壽堂 電話本局一六六〇番 振替京城一四二五八
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 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 支店 大連市岩代町大通

◇注意 廣告를보신後에는必要가잇슬지라도後日所用될듯한것은에如保存하시오매우要한때가만습니다



◇소등에도 말은나무, 짜우에도 말은나무

國境의結氷과 在滿各團活動

警備에着手하는警務當局

—국경방면의경비를리용하야 너디로침입한다는재만각단톄—

두만강하류(豆滿江下流)이하일대 단톄들이 활동하든바 최근모처경원일대(慶源一帶)를비롯하야 에도착한정보에의하면 범서부압록강(鴨綠江)일대는지난이십 터산디에 피하여잇든 각단톄단륙일부터 얼음이얼기 시작하야 원들은 조선내지에 들어와모종경원군성천도선장(城川渡船場) 운동을개시하여보려고활동을하은위나 삼십일부터 아조얼음우 는중이라는바 경무당국 에서는로통행하게되엿다는데 해마다 일반경비에 노력하는중 더욱이경비구(警備區)를리용하야만주 국경방면의경비를엄밀히하는중각디(滿洲各地)에 산재한○○이라더라

警察部에서잡은靑年 鍾路署에서取調

사건의내용은비밀에부치고 間島서왓다는邊道彬

며칠전에 경긔도경찰부 고등과형사는 시내수송동(壽松里)십오번디를비롯하야 락원동(樂園洞)등디에서 대활동을하얏스나 수색하든사람을 잡지못하고 시내종로통집거리에서 본적을 함남신흥군(新興郡)에두고중국 북간도모디방에 들어가 잇다가 최근에도라온 변도빈(邊道彬)(二○)이란사람을잡아다가대데의 취조를한후 종로서로 넘기어동서에 인치하고 방금취조중이라는데 사건내용은 비밀히하는섯닭으로 아직자세알수업다더라

釜山私刑言渡

구형과가치

부산일본녀자 원던요시에 사형사건은지난사일에판결언도가잇섯는데 역시검사의 구형과가치 이개월징역에이년간집행유예에처하엿다더라(부산)

光韓團員 朴正鎬氏出獄

팔개년만에

지금으로부터 칠년전경신년(庚申年)겨울에광한단(光韓團)사건으로평양경찰서에잡히어평양디방법원에서 팔개년의 징역을밧고그동안 경성형무소에서 복역중이든평양읍생(平壤出生)박정호(朴正鎬)(二五)씨는수일전에 만긔출옥이되여 요사이 평양으로나려와서교구정(橋口町)십칠번디그의자씨의 집에서 휴양중이라더라(평양)

直訴共犯逮捕

귀보=직소범인금좌관신(金佐官臣)의공범자삼직차랑(森直次郞)이가지난달 이십구일에동

昨日에도證人調查

피의자들은불구속하고취됴 京城府議員不正投票事件

경성부 협의원 부정선거문데에 관하야 변호사 리홍종(李弘鍾)씨로부터 데출한 문데와 부청(府井)씨 당선무효신청을 경긔도지사로부터 각하하든 지난사일 경성디방법원 검사국에서는 룡산서에 지휘하야 유권자들의 취조를 개시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피의자는 조선인일본인동비명으로 그날오후 룡산서에서는 대략취조를 맛치여가지고 피의자들은 불구속한대로 그서류와 함께검사국에 넘기여 동검사국에서는 중야(中野)상석검사가 목하계속하야 취조하는중인데 그날오후에는 전긔리홍종씨를 증인으로소환하야 상세한것을 취조한일이 잇섯스며 작륙일에도 그중인으로 유권자모모등을 소환하야 당일오후부터 취조를 개시할모양이엇는데 임의검사국에서는 유력한증거를엇은듯하야 그전도가 자못락관(樂觀)을할수업다더라

起算日이問題

거주만긔가못되여 永登面議不正事件

긔보=영등포 면협의원(永登浦面協議員) 선거의선정에대하여서는경긔도 당국에서 투표전부를가저다가 그동안 엄중히조사하던중 용이히해결할수 업는난문데가또하나 발견되아서 도당국에서는도더히해결할수업슴으로봄일간 총독부에결재를 맛하서결뎡하리라는데 그내용은 영등포금융조합 리사영뎡(永井)씨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서 금년십일월 이십일일까지 계산하면당연히 선거권이 잇스나 유권자명부 작성일측 십일월일일까지 계산하면 거주(居住)만일개년이 못되는것을 명부에올려서 투표하게된것임으로 법규해석(法規解釋)에 따라서 긔산일(起算日)이 각각 달으게됨으로 그와가치 문데가 중대하게된것이라더라(시흥)

昨年末現在의全朝鮮人口 千九百一萬五千五百餘

昨年十月國調結果보다五十萬減少

—총독부에서조사한작년말현재의전조선총인구총계는 천구백일만오천오백이십륙명으로국세조사보다적어—

총독부는작년 십이월삼십일일 오전령시를 긔회로하야전조선의현주인구(現住人口)를조사(統計調查)를실행하야 약일개년이라는긴동안에 그통계재료를 집성중이든바 최근에이르러서야 겨우완결되여 지난십일월 십칠일에야 발표되엿는데 그에의하면 작년십이월삼십일일현재조선에 현주한총인구(人口)는일천구백 일만오천오백이십륙명(남자구백칠십삼만 구천삼백사명, 녀자 구백이십팔만륙천이백 이십이명)으로 이보다삼개월전에 시행한국세조사(國勢調查)에조사된 조선인총수 일천구백오십이만이천구백사십오명에 비하여는 약삼십삼만칠천사백사십구명이 감소된모양인데 그는작년구월일일의현재조사(現在調查)로그로디에잇는이를모다망라된것이나현주조사(現住調查)는 주소지한으로그가치검사된것이라하며 현주조사에의하면 세대(世帶)는삼백륙십만구천륙백이십사(국세조사에는삼백칠십이만구천백삼십삼)로 주거(住居)는삼백십삼만구백삼십삼만 팔천륙백이로주

農業이第一位

무직자도만허

번항현주조사의호구직업별(戶口職業別)로보면농업(農業)림업(林業)목축업자는 일천오백사십 이만오천오백 이명으로전조선총인구의 대부분이그갓흔원시뎍(原始的)산업을 경영하는자로어업(漁業) 제염업(製鹽業)자는이십륙만사천 백구십삼명으로 공업자(工業者)는겨우사십구만사천삼십삼명에불과하야 조선의공업이아즉유치한것을 말하는터이며상공교통업(商工交通業)자는 일백삼십일만일천칠십이명과 공무(公務) 자유업자(自由業者)는오십륙만 사천팔백이십오명으로비교뎍 관리가만흐며그밧게유업(有業) 자류십사만 이천사백팔십일명 무직자와직업을신고치안은자는 이십사만팔천삼백십구명 이라하나 이외에도현재직업이업스면서도 보통농업이라는이들이 만흠으로무직자의수는 확실치안타더라

全朝鮮團體數 千七百四十二

청년운동단톄가뎨일만허 衡平團體가最少數

지난구월말현재 총독부경무국에서조사한전조선안에 잇는단톄총수는 일천칠백사십이개단톄인데그중 뎨일만키로는청년단톄로일천구십 이개처요그다음이정치와사상단톄로 삼백삼십팔개처요 그다음이로동단톄로백팔십이개요그다음이형평(衡平)단톄로백삼십삼개소라는데 대개좌경뎍색채를씌엿다더라

所謂「融和結婚」 一年間에五百쌍

—일본녀자가조선사람과만히살고 중류계급이상은이런결혼을안해—

朝鮮人과日人間의配偶關係統計

총독부문서과(總督府文書課)에서는조선사람과 일본사람 사이의결혼상태를 각도에 조회하야조사하는중 이라는데 금년에들어십일월말까지에 총결혼수가오백을돌파하엿다는바 이것을대뎡십년의 일백이십사에 비하면단지오년간에 놀라울만큼 증가하엿다하며 그런데그원인으로는 조선사람사이에 일본말이 늘어보급되고 일본사람의 생활을조선사람이만히리해(理解)하게되는까닭이라하며그배우(配偶)상태를보면 조선남자가 일본녀자와결혼한수가 총배우자수의 삼분의이를 덤령하엿다는데 그는 조선고래(古來)의습관으로인해서그럭하다하고 압흐로 새교육을바든 조선부인은 일본청년과 결혼하기를희망하는경향이 만하간다하며다시직업(職業)별로보면농업(農)상업(商)노동자들이그중에일만코중류(中流)이상에이르러는 아직그수가 열에도차지못한다는데 그중에도 일본사람어느촌(村)에서일본사람덥방에서고용사리를 하다가 일본사람의집에양자사이가된조선사람이세명이잇다하야 당국에서는 이것을매우자미잇는현상이라고하더라

間島移住民의荷物運賃을橫食

車中에서無名으로警察에投書

—간도가는동포의짐을부처준다고 엄벙하고돈먹은후경찰에잡히여—

시내동대문서에서는수일전시외왕십리면(往十里面)부근『마루대』(丸大)운송뎜의고용 으로잇는최필성(崔弼成)(二○)을인치하고 엄중취조를하는중 이라는데 그내용을들으면 열마전에생활난으로 북간도(北間島)를 행하야떠나는불상한 리민 중엣던이를 속이여짐을 붓처준다고현금 륙원가량을 사취 하엿다는것으로 그사실이 피해자편으로북간도를 향하는도중에 그가치속은줄을알고 무긔명(無記名)으로소관동대문서로투서(投書)를하야발각된것 이라는데방금취조를하는 동서사법게에서

도한돈이현금갓흔 불상한 이민을속이고그가치 사취한것이 괫심하다하야 엄중히취조를 계속하는중이라더라

產母의哀願으로 棄兒한看護婦

불의아를버려달라고애원 從姉와密通하고入院解產한少婦

시내종로서사법게에서는어래긔아범인을수색하든중시내죽첨뎡(竹添町)삼뎡목정규원(鄭圭元)의원에 입원햇든 엇던젊은녀자가 아히를나엇는데 그아희가어되로갓는지 업서젓다는 소문을듯고 그것이 서궐안 영아참살유긔사건에관계가잇지나아니한가하야 조사한결과 서궐안사건과는관계가업고다른사건이 발각되여 동의원산파 조이덕미(趙以德美)를동서에다려다가검속하고 취조를 계속중이라는바그내용을듯건대본적을황해도금천군금천면금릉리(黃海道金川郡金川面金陵里)김용희(金容熙=假名)의당녀김수길(金壽吉=假名)이가지난 음력정월에그의사촌오래비김정욱(金正旭)(九)과비밀한관계를매젓든결과임신되여그곳에서는 남이붓그러서 해산치못하고지난팔월십일경에경성에올라와서전긔 정규원의원에 입원해가지고 지난십일월 이십삼일오전여섯시반경에녀아를나흔것을그대로길을수가업다하야전긔산파조이덕미에게사정을말하고 바려달라고 하엿슴으로 조이덕미는 즉시봉대로뭉처가지고 남대문외 세부란스병원부근에다가 남몰으게 갓다버린것이라더라

경(東京)으로부터도망한사건은 그후엄탐중이든바 내량(奈良)송곡대차랑(松谷大次郞)의집에 가서 숨어잇는것을 오일에데포하엿다더라(대판뎐보)

正友會宣言 大體로反對

서울청년회에서

시내견지동 팔십번디에잇는(서울靑年會)에서는 지난삼일하오네시에 그회관안에서 집행위원회를열고 여러가지 사항을토의하엿다는데 그중 정우회(正友會)의선언에대하야는 대톄로보아서화실히조선사회운동으로하여곰현후케하는그릇된경향을뵈이는것이라하야동회에서는토의위원을선거하야전진회의검토위원(檢討委員)과공동토의를하기로 결뎡하엿다하며 이에대한최후의태도를 결뎡하기위하야 금칠일하오두시에그회관안에서긴급총회를열기로결뎡하엿다더라

米國의援助밧는 浙江省官吏入京

행정사법의현상을시찰코저 두달예뎡으로됴선에드러와

중국절강성(浙江省)특파원으로조선행정사법시찰원(朝鮮行政司法視察員)림조봉(林祖鳳)(三)과그서긔 주건신(朱健信)(三)씨는이개월의예뎡으로조선을시찰하려 작륙일에 부산에도착하야 경성을향하엿다는데 미국령사의 원조를밧는다는 정보가경긔도경찰부에드러왓다더라

◇京城附近青年 團體聯合懇親◇

구일열빈루에서개최

귀보=경성에잇는청년단톄사이에재래로흐르는암류(暗流)를배제하고소격한바를피력(披瀝)하기위하야 시내견지동 팔십번디경성청년연합회(京城青年聯合會)에서는경성부근 청년단톄연합간친회(京城附近青年團體聯合懇親會)를 열게되엿는데그시일과장소와기타사항은아래와갓더라

▲時日 今月九日下午七時 ▲場所 授恩洞悅賓樓 ▲定員 每團體二人式 ▲會費 每人分五十錢式

그외당원이외개인으로참가할수도잇다하며 회비는반드시휴대하여야된다고

▲準備委員 任允宰 曹哲 李樂永 朴齊榮 吳晩圭

日本東北大雪

사일밤부터오일아츰까지 일본동북디방(東北地方)에는일척이상의눈이나리여 청함련락선(靑函連絡船)은풍설때문에 출발치못하엿다더라(청삼뎐보)

中國紙幣僞造

犯人三名警察部에被捉

중국지페위조범인세명을 작일오전경찰부에서잡어

경긔도경찰부고등과변(邊)형사부장과 윤(尹)형사는 작륙일오전여섯시경에 시내황금뎡(黃金町)일뎡목 대창려관(大昌旅館)에이르러 취침중에잇는 오준근(吳俊根)이라는사람한명을데포하고계속하야 서대문뎡(西大門町)모처에서 리모(李某)와박모(朴某)등세명을데포하야경찰부에서취조중인데 사건의 내용은 아직미상하나 오준근이 주범이되여 중국지페십원표를 시내모처에서 위조하든것이라는데 증거품으로 십여장을 압수하고 인쇄긔를 수색중이라는바 범인들이 아즉자백지는안호나 수만

竊盜罪로法網에

남의소한번타보고 일심에서징역륙개월밧고 控訴하야結局無罪

함경북도 경성군 라남면초뢰뎡(鏡城郡羅南面初瀨町)에 원적을두고 동군어랑면 룡강동(漁郞面龍岡洞)에거주하는리영칠(李永七)(三八)은 지난구월십일밤에동리에서 여러 친구들과갓치술을먹고 취하야 자긔집으로 도라가는길에 그곳 서북악종(西北岳宗)우에 매여둔동리백운종(白雲宗)이라는사람의소를푸러타고 자긔집까지가서는 그소를다시노하주어주인의집으로도라갓섯는데 이것이 원인이되야그후리영칠은 어대진(漁大津)경찰서수남(水南)주재소에절도피의자로 검거되야 취조를밧고다시어대진서로 압송되여 또엄중한취조를밧은후청진(淸津)디방법원검사국으로 너머가결국절도죄로 공소(公訴)에부처동법원에서징역륙개월의판결을밧고 즉시그판결에 불복한후경성복심법원에공소하야얼마전에공소공판을밧을때에『자긔는 결코그소를도적할의사로타고갓든것이아니요술취한중에작란삼아타고갓다가곳돌려보낸것이라』고 일심이래의사실을주장하야그중인을환문하여본결과 과연절도의의사가업든것이 그중인으로명확히드러낫슴으로 당일 립회하엿든 하촌(河村)검사로부터 무죄를론고하엿든바 작륙일오후 동법원말광(末廣)재판장으로부터 과연무죄의 언도를바다 리영칠은 억울하게 그동안 철창생활을하다가 비로소그날로부터 청텬백일을대하게되엿더라

假刑事强盜

시내에왓다고

지난일일오전 한시경에 전남순텬군쌍암면도뎡리(全南順天郡雙岩面道亭里) 장긔협(張基俠)(三七)의집에동면경찰관주재소에 근무한다는가형사두명이 돌연침입하야 어머볼일이 잇서서나간뎌 장긔협을다려다 뭇코결박을지운후 재판사건에 가택수색할 필요가잇다고 빙자하고방으로드러가서 온방안을뒤지어 가방속에 드러잇든 현금삼십륙원을꺼내여 가지고그만 종적을 감추어버리엿다는데 소관 순텬서는 물론전남도 경찰부에서는 그갓흔강도사건이 최근 빈발함으로관내에시급히조회를하야이래수색을하엿스나사일까지도그종적을찻지못하야다시수색의범위를 넓히여 각도경찰부와련락하야 수색을 계속하는중이라는데 동범인들은 범행을한후로 교묘히몸을 빼서번화한서울로 잠입하엿는지도 몰은다하야 작륙일부터 시내각서도범인수색에활동중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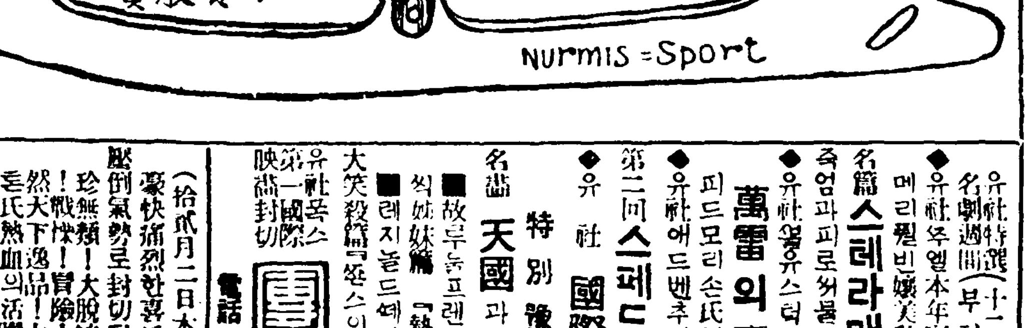
◆廣告도記事 廣告도重要한一種記事이라 讀熱玩味하시면實益과趣味가不少하오리다

拂下品 國境警備隊被服類大廉賣

黑羅紗 冬服上下 四千七百組
同 外套 貳千六百枚
茶褐色 防寒服(上下) 壹千百組
同 冬사쓰(上下) 七千組
純毛 사쓰 四千組
同 掌甲 四千組
同 洋襪 六千組
其他防寒帽、頭巾、靴類各種

右販價品을賣却하오니希望하시는이는下記場所로下命하시압

諸官衙拂下品御用 朝鮮京城林町一四二番地
長電話光化門三三六番、電略(シ)又ハ(シモ)
下森菊藏本店
販賣所 黃金町二丁目永樂町角



補藥은求하시라면 藥材精選과信用잇는곳으로

近來藥材의優劣이多함은僉位도旣히諒燭하시거니와店材常材를混入하야價格만低廉케하야世人의耳目을眩惑케하는것을 信用치마시고本藥房의藥材를一次注文하시와價格及品質이不同하거든 ... 本藥房은信用을生命으로하나이다

▲十圓以上注文에는民曆一卷進呈 ▲十五圓以上注文에는特別料를贈呈 ▲外方에서十圓以上注文에는送料에 ... 一卷進呈

鹿茸大補湯 十全大補湯 八味湯 六味湯 四物湯 倍四物湯 雙和湯 鹿茸大補丸 調經種玉丸 十全大補丸 八味丸 六味丸 四六味丸

補材專門 京城府仁義洞二十番地 中兒弟大藥房 電話光化門六九八

登錄商標 回春爲記

◆家庭에、懷中에반드시豫備하시요!
◆不時에、멧丸이金보다나흡니다!

靈神丸 령신환 代表的消滯藥

朝鮮賣藥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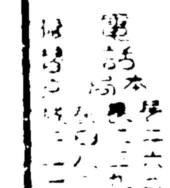
朝鮮劇場 電光二〇五〇番

豪快痛烈한喜活劇週間 壓倒氣勢로封切되난키-돈映畵會 (拾貳月二日木曜부터)
珍無類!大脫線!哄笑!爆笑! 戰慄!冒險!스피-드、果然!大天下逸品!大王바스타-키-돈氏熱血의活躍篇!

爆笑的喜活劇 키-돈의된베라 八卷 大메트로、골드윙社超超特作
天下라도웃기고地球라도웃길 世界的名物男키-돈君의映畵는 冒險이요活劇이요痛快痛快 大메트로社特作映畵 大王바스타-키-돈氏主演
大喜活劇 荒武者키-돈 七卷
珍奇幻妙 同志者키-돈 二卷
絶倒抱腹 헤개비키-돈 二卷
活動物 실업슨아부지 二卷 世上에도드문珍世名喜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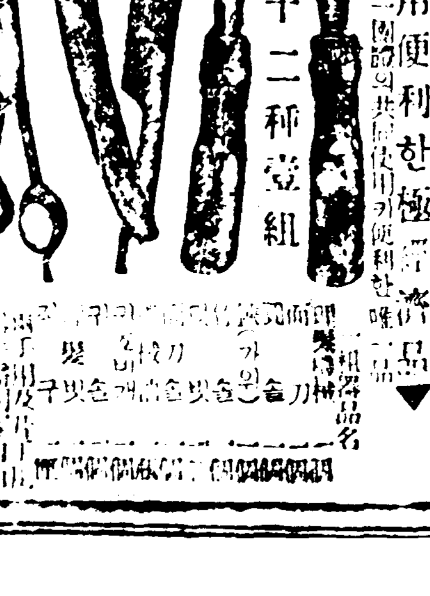
團成社 電話光二九五九番

유社特選 名劇週間 (十二月六日부터公開)
名篇 스테라매리스 全八卷 ◆유社쥬엘本年度超特作映畵 메리필빈孃美滿二役出演 죽엄과피로써물드려논메비극!
萬雷의轟聲 全五卷 ◆유社쥬엘特作西部劇
◆유社에드벤추어特作長篇 피드모리손氏猛演 第二回 스페드의1 三四篇 全四卷
◆유社 國際時報 全一卷
特別豫告 名畵 天國과地獄 全七卷 ■故루돌프렌치노氏最後作品 씨스妹妹篇『熱砂의舞』全篇 ■레지놀드데니氏主演 大笑殺篇『엔스의大事件』全八卷
유社第一國際映畵封切



十二月一日부터十二月十日까지 경품권 드려 특가로드림니다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京城本町三丁目 電話本局 ...
오전九時부터 오후十時까지 상품진렬 ... 로종람식히나다

東華理髮器會社特製品大宣傳
▲使用便利한極上品▼
個人家族一團體의共同使用키便利한 十二種壹組



▲甲種 壹組 參圓
▲乙種 壹組 貳圓八拾錢
▲丙種 壹組 貳圓五拾錢
眞正한鋼鐵製特製이오니 諸氏는注文하시오 京城府鍾路二丁目八七番地
東華理髮器會社 總代理店 大正商會

毛織周衣次廣告
純毛織周衣次一件치척十八尺二圓五十錢
不侈不儉하고튼튼하고더럽도아니탐니다
經濟服으로는데일좋은件이올시다
色은黑白靑色各一次使用하심을 ...
京城府鍾路二丁目九八番地 貿易商 申德鉉 電話光化門一四番

承認 完 全北全州本町三丁目 合名組運送部 電話四四、四三番 振口京城五四三二番

◇圖案廣告◇

조선상업광고술이아직유치하야자력은다른나라사람의광고와맛찬가지를드리면서도효과는그만큼엇지못하는것이현재우리조선의현상이며또한광고가상품판매에얼마나한가치를가지고잇는지도분명히리해치못하는이가만흔것을유감으로생각한본사광고부에서는이저부터이에대한향상발달에도움이잇기를위하여오든바지난번에모집한데입회도안광고현상투표가이에대한첫거름이엇다이시험이처음이엿지마는성적은예긔이상으로조흔결과를보게되야가지가지각색의기교와외장을앳기저안코지면상에진렬하야여러독자에게비판을구하엿든바일반독자는옥가치아름답고황금가치찬란한그중에서도경성방직주식회사의도안을데일등으로동아부인상회를데이등으로화평당대약방을데삼등으로추천하엿다여러분의정당한비판안이세군대광고주에게집중되엿스니물론이는당선된광고주들의다시업는광영으로생각하는바이다본사에서는이러욱사계의발달을바라는뜻으로당선된광고주의영업내용을해부하야엇더한노력으로이러한영광을입게되엿는가를소개하여보고저한다

一等當選

「내살림내것으로!」 己未年에創立

자작자급의민족뎍가성으로생긴 경성방직회사의설립당시와현상

八年苦楚한京城紡織

조선사람은 광목으로옷을 지어입는데 광목을짜는집이 경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式會社)이다 경성방직주식회사는 대정팔년삼월에 비로소 창립된것인데 대정팔년이라하면 언제든지 조선사람으로 잇지못할 긔미년(己未年)이다 조선사람은고래로수공업(手工業)으로써어내는 포목으로옷을지어입어냇든자작자급(自作自給)을하여왓스나 세상의교통이 편리하게 됨에따라 외국으로 수입되는끔고갑싼 긔계생산품에 눌리여버려 차차 외국광목이아니면 옷감이아니라고할만큼 광목이 왼조선천지에퍼지고말엇다 이로말미아마 매년수천만원이라는 광목갑이 조선으로부터 다른나라로 흘너나가게되엿는데 수천만원의 돈을일허버린다는것보다우리빈약한 조선에는경동맥(頸動脈)으로피가쏘다저나가는듯한 실로 조선인경제생활의 명맥을 끈허드리가는 큰손실이라고할수잇다 이와가튼 민족뎍 대손실의위긔를 당하엿슴에 긔미년이라는 큰운동이 광목입는사람들의 졸든잠을깨우치자 분연히 이러난소리가『내살림내것으로』하는 표어(標語)와 이에실제운동이 생기게되엿다 이를긔회로 자력잇는 선각자들사이에 의견이 합하야 이러난것이 이 경성방직주식회사인데 이회사가 실로조선사람의방직업으로는 개벽이래의 처음일이라고할수잇다

名振半島의「우리廣木」聲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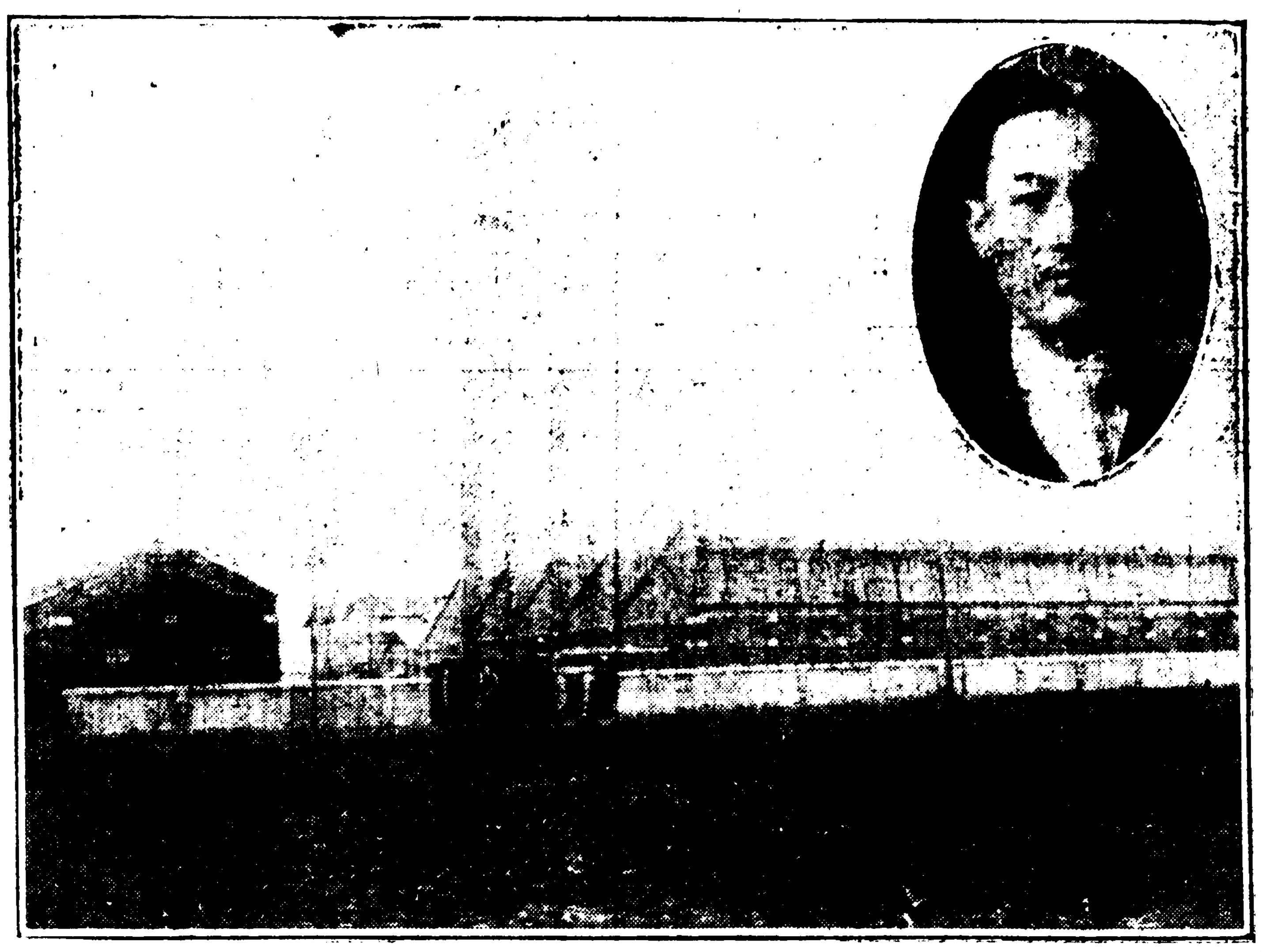
사백명동포직공이짜어내는광목 멀리서북간도에까지성가가놉하 到處에活步하는國產黨

아직조선사람으로는 방직 업을 만원이라는 대규모의 것으로만 하여본 경험이업섯든 때라창립시대의고초라니 이로형용 할수업스려 나와그당시 책임중지 발긔한취데역 김성수(金性洙)씨 전무취데역김년수(金秊洙)씨상무취데역리강현(李康鉉)씨등의 헌신뎍 큰노력과 일반유지의협성은 필경은조선커디론는 가장 어려운 이회사설립을 자본금백 만원이라는 대규모의 것으로만 틀어냇코야말고영등포(永登浦) 벌관에 하용을씨르는 苦衷屈辱 고용내여밀어 조선을 종단(縱斷)하는 내외국사람에게조선사람도 이런것을만들수 잇다는표본을보히게 되고그안에서 활동하는 사백여명의 남녀직공의손끗호로 되여나오는 매년사백삼십이만명발야드(疋)가격으로 하면 백이십만원의 광목이조선으로널리 퍼지어 멀리나라를넘어서 북간도에까지 태극성(太極星)혹은 삼신산(三神山)혹은 무엇무엇하는 광목이 환영을밧게되여『우리광목』의성가가더욱놉하지게 되엿스며『우리광목』을입은 동포의옷자락이 여긔저긔서펄넉거리게되엿다

七萬圓의純利益 今後는配當한다

생산품이부족하다

경성방식회사제조광목은긔미년이래의 활동의결과 이제는국산품이라는 환영보다도 품질소키로환영을 밧게되엿다 이리하야 근긔와서북도는 거의전부가조선방직의 판로범위내라고 할만치되엿슴으로 수용량이 근년에 이르러 무섭게격증하야 작년에 이십대의 직긔(織機)를 증설하야 밤나업시짜내나 오히려설비가부족하야 요구에 응치못하고 전조선 광목소비량의 약오십분의일을생산함에불과함으로장차 더욱확장할예뎡이라한다실상작년갓흔해에는 륙칠만원의 순리익이나서 주주 배당까지하려하엿스나 전고미증유의 대홍수의 피해로 달하지못하엿는데 이제부터는 적립금을 적게하고라도 주주의배당을하리라한다



◇寫眞은 京城紡織會社全景과 常務取締役李康賢氏

二等當選

經營者를어든 完全한百貨店

신산한경험과충분한지식으로 큰백화뎜이되는동아부인상회

東亞婦人商會의偉觀

조선인상계의 주심인 종로큰거리한복판에 노힌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라하면나어린학생들까지 짐작하는 양품잡화상으로유명한곳이다 더욱 그자톄가조선에처음으로이러난부인들로써 조직된상회인만큼 일반의 긔억은 더욱깁히박히게되여 한때는 실한오래기 연필한개를살일이잇서도 동아부인상회로 찾게되여 일반의인긔라는것은 실로조선상계에처음볼만큼그곳에 집중되엿다 이와가치 팔년전에 시대뎍산품(時代的產品)이라는 칭예를바들만큼굉장한인긔속에 이러난 동아부인상회는 장래가 더욱유망하엿스나 이또한 부인들의경험업는 사업에다 실체당국한영업자의 실패로인하야 몃번이나명실이 상부치못한 위경에이르러섯다가필경은상회를다른사람에게 양도하기까지에 이르럿다 이와가치 합자회사동아부인상회는 작년에해산이 되여버리고말엇스되 동아부인상회라는상호에대한인긔는여전히일반의흥미에남어잇슴에다년간 상업에 신산한경험의지식을 어든덕원상뎜(德元商店)주인최남(崔楠)씨가그상회를인계하야작년구월부터경영에착수하게되매 로련한경험과 친절한 대책과가뎍의정화은 잠시숨기엿든 시민의인긔를다시회복하야 점점확장되더니 얼마아니되야 상층벽돌집을증축하기까지되여완연한대백화뎜(百貨店)을종로에자랑하게되엿는데 동아부인상회는 그 창립도 시대뎍이엇거니와 지금도모든설비가 가장첨신한 현대뎍이라고아니할수업다

商界의先進者 崔楠氏의功蹟

빈한한가뎡에태여나성공한 최남씨의신산한경험과사업

最先定價販賣斷行

조흔명망을 바드면서도 경영난에빠져 상뎜을 해산하게까지되엿든 동아부인상회를 인계하야 불과일년에 오늘날에 볼수잇는 번성을 일우어노흔 최남(崔楠)씨의 수완은 과연놀엇더한고 씨는본래빈한한가뎡에태여나서보성(普成)중학을 졸업한후 [illegible] 은행원으로 드러가 매일컨컨축하는 상인들로부터 즉컵간컵으로 상업술을 연구하다가 귀청팔년에 종로이뎡목에잇는 덕원상뎜(德元商店)을 자긔의명의로 인계하야 과거예견문한지식을 실지로 연구하여보게되엿다 본래성질이 조밀한성격이라 덕원상뎜 경영사년간의 경험과지식은 씨로하여금 완견한상인을 만들고야말어 은행사직하고 역시종로에다 데일지뎜(第一支店)을설치하게되는동시에씨의날카로운눈은상품의원산지인 일본으로향하게되여 대판「사입뎜」(大阪仕入店)을 두게되엿스니 이때까지대판에사입뎜을둔사람은 조선인으로는하나도업섯다고한다이와가치대판에「사입뎜」을두고근실한뎜원을택하야삼년식 교대로 주재케하야일본상계의추이를직접견학관찰케한후에는 귀국하야는 그지식을직접 발휘케하고 일본의큰상뎜과가치 뎡가판매주의(定價販賣主義)를실시하엿는데 그당시종로거리에서 뎡가판매를 단행한다는것은 여간어려운 문데가아니엇스나얼마아니하야진보되는세상은 도로혀 신임을밧게하엿다고한다 이러케 컨컨상뎜이번창하다가 필경은 동아부인상회까지 매수하야 경영하게되고금년에는 삼층집까지 신축하게되엿는데 착실한그의 성격과 발군한그의상업기술은종로거리에도조선인 삼층백화뎜을 짓게하고야만다

店員에게極親切

入店하면終身勤續

립지면중에들최남씨행동

최남씨는본래 빈한한 사람으로 신산한경험을 맛본터라 뎜원에게대한친절한 동정은 다른데서는다시볼수가 업슬만치 돈독하야립지년중에오를만한사람인데 그가엇더케 뎜원에게 친절히하는지현재뎜원 삼십명이 한번만 드러오면다시는나갈줄을모른다고한다 이와가틈으로 씨가경영하는영업이 오늘의현상을 보게되엿거니와 삼년식교대로 대판에 주재식히는법은 조선상계의 자랑거리의 하나일것 이라한다 겸손한 최남씨는『나는경험업는 일은아니하려고합니다한번실패하면 다시거두지 못할악영향을 주니까요……장차상게에대할약을하여볼것이게획이어니와동아부인상회는 더욱내용을 충실히한후에 본래의사명을 완견히할수잇게어느부인단테에넘겨작뎡이외다』라고하더라

萬物이俱全한 정말百貨店

동아부인상회

종로거리에는 여러가지 백화이라는·간판을붓친상뎜이만라 그러나 대개는순진한 양품잡화뎜에불과하고 실상백화뎜은 아니다백화뎜이라면 만가지상품을 구비하여야 되는데식료품도 잇고약품도 잇고신발도 잇고피복도팔어야된다 그런데 동아부인상회는 식료품과 약품이나좀속물가튼것을 빼어노코는 거의만물이구비하엿다 시게도잇고 문방구도잇고 화장품도잇고 거의물건이 정비되엿스니 조선사람의 백화뎜으로는 가장완비한것이라 할수잇다

比性格表示

종로거리에 덕원상뎜(德元商店)이라는 간판이붓흔상뎜이 섯곳이엿다 본뎜에대한저명과 데이제뎜을합하야 섯곳이다 그런대변뎜이데일작고지뎜이될수록상뎜이크다 넷재번인 동아부인상회는 더욱크다이것이 최남씨의천성을 표시하는것이라고 한다조선사람의사업은 시작이굴고 끗이섬욱한다고 한다마는……

◇寫眞은 東亞婦人商會의主人崔楠氏와仕入主任崔載泰氏

三等當選

卅三年前創立 朝鮮賣藥界先進

조선에서첨으로매약상을시작해 매약게의패권을잡은화평당대약방

和平堂藥房創立과本旨

지금부터 삼십삼년전이라 하면 아즉조선에는 양약이라 고는청말약에쓸러도구하기가드롬엇고 보도자항(普渡慈航)과박시제중(博施濟衆)이라는고귀한문자를 대서특서하야방곡간에붓쳣슴이 엇슴뿐이엇다 그러나 이것도일부생활의 여유가잇는사람 들을 위한것이오 빈한한 사람은좀처럼에를써도 의사의손을 만저볼수가 업섯든때이다 이런때에리응선(李應善)씨가인천축현(仁川杻峴)에 조고마한약국을설시하고화평당(和平堂)이라는상호를내여 붓치엇다 그러나이역시구식의 것으로 지나지못하고 리응선씨는 용법이 간편 하고 일반덕 으로 서민에게 보급될만한약품을 판매하여야 되겟다는데 리상을두고 남들은아즉생각지도안은 약품상을 시작하게되엿다 이리하야 첫사업으로한약을 원료로하야소화약을 환제(丸製)로하여 팔기시작하엿더니 불편한첩약에 비할바가아니라 판로는점점확장되여 누구든지 쉽게매약을 구하게되엿는데 그뼈는 물론 다른매약이라고는 불수업섯고 일본약품도 드러올생각도하지를못하엿슴뼈인데이와가치 남이못하는 새사업이엇슴으로 약국은점점발뎐하야 태양조경환(胎養調經丸) 자양환(滋陽丸)팔보단(八寶丹)가튼성가가 놉흔약을 만들게되엿다고 한다

바멋다고하는데이와가치약방의 명성이놉하지고귀초도상당허공고하게되자매약품의속출로일반 매약의성가가 떠러지게되매 이를념려하야 효력본위의 약을만들며한편으로 빈민구제의 목뎍으로조선병원(朝鮮病院)을설치하야동서의약의장뎜을연구하야 직접환자를 치료도 하엿섯다고 한다

現在資本廿萬

유명약도만허

총자본이십만원

실패는경험이오 과거는 지식이다그사이에 여러가지실패와 곤난이한두가지가 아니엇겟지만은백절불굴의 긔개로 오늘날의 화평당대약방을만들어노코그의 리상의일단을 실현하기에 이르럿는데영업은커가나본래개인의 자본이라년전에조선매약주식회사로[illegible]하야경영하게되야 리응선씨는사댱겸전무취데역이라는중임을가지고여전히 본래의 목뎍에노력을 한다는데 현재 화평당약방만의 자본이약 이십만원가량이라하며제약중주요한자는다음과갓다

▲貽養調經丸▲滋陽丸▲八寶丹▲麝香消痛丹▲蘇生丹▲回生水

東西醫藥을兼業

빈민도만히구제하고 중국인들의사례도바덧다

그리다가지금부터이십삼년전에 경성중앙종로큰거리에현재의자리를잡고화평당대약방이라는간판을붓허달게되엿는데그뼈에비로소 일본으로부터 양약이수입되고 양의가 개업을함뼈이엿다고한다 이뼈부터 리응선씨는광고술의 효력만은바를 알게되여 커커에 팔보단(八寶丹)이라는 광고판을붓치게되엿는데그의약이령효하다는 증거는 을사년(乙巳年)중의당시에 중국인거류민으로써공심(淸世功深)박시제중(博施濟衆)시내인장(長乃仁術)등의액판(額板)의긔증까지

◇寫眞은 和平京大藥房本舖全景과主人李應善氏

貽養調經丸 滋陽丸 製造本舖
京城鍾路
和平堂大藥房
主 李應善
電話(光化門)七一番
振替京城五〇〇五番

本社製品
태극성 산삼표 不老草 三神山 天桃
京城紡織株式會社
京城黃金町一丁目
電本一四三三 二六九二番

和洋百貨雜貨輸入商
東亞婦人商會
電光一二〇番
德元商店
電光一六九番
主 崔楠

地方論壇

農校昇格運動 有始有終하라

寧邊一記者

一

寧邊公立農業學校는元私立新興學校의後身으로 明治四十四年五月에 公立農業學校로組織을變更하며 地方費補助로維持하며 地方農業의發達을圖하다가 去大正九年度에修業年限二個年을三個年으로 延長하는同時에 諸般設備를刷新擴張하여面目一新한 中等教育機關으로는遜色이업스리만치 完全의域에達하야 現在卒業生이十三回에四百四十餘名에近하고 年經費가 一萬四千餘圓을超하는狀態이나 이와가치 將來十數星霜을閱함에 만흔英才를培養하엿스며 本郡은勿論 本道實業界에不少한貢獻이잇슴은 世人이共知하는바오 乙種農業學校로서는 全鮮에第一位를占하여 實業教育機關으로는 업지못할學校이니 將來同校의發展을待하여 吾人은實業界를爲하야그前途가자못洋洋함파아울러 多望의期待를갓고잇는터이다

二

寧農校의現況이上述함과如한데 近日聞한바에依하면 同校를他郡으로 移轉云云하는風說이有하나此는不可信의것이니 郡民은諒解할바이며 近日同郡民은 同校實業界에與하는實益과 又는現下教育界에 만흔光明이잇슴을時代에作하는 同時에 從來修業年限三個年을五個年으로 延長하야甲種學校로昇格코저 郡民有志와 同校校友諸氏의唱道로去十一月二十一日에寧邊農校學年延長期成會를組織하고 昇格의目的을貫徹코저 全郡的活動을期하려方在諸般準備를 着着進行하는中이라한다 此際에臨하야 吾人은滿腔의熱誠으로써後援의誠을表함과아울러 全郡民의意義잇는手腕과 勇進不退의精神을持하고 最後一分까지 希望的性을不捨함을熱望하며 一言을進하야 同期成會로서龍頭蛇尾의 不美가無하기를바란다

三

或人은日農校는公立學校이며 如斯한學校는 寧邊에存置의必要가업다고하여 冷情에付하며 昇格運動이猛烈한 今日에도 不拘하고 疑問的態度를取하나 이와갓흔말은一을知하고二를不知하는人이라 足히써相談할바못되나 吾人도目下우리의環境과周圍의모든事理를 잘알고잇다 그러나如何하랴?況!教育如何로 그社會의進退如何를察하는現代에잇서서랴? 此際吾人은極力期成의必要를 切感하며 따라서熱誠잇게全郡民이活躍하면必히昇格의曙光을 不遠에불을알며 昇格如何가目前에急務인만치 實業方面의進退如何가 또한그에隨하야多大한波及이잇슬지니 期成會員諸氏는初志貫徹에努力할것이며 寧邊人士는 이에應하야적지안은誠意를表하야할것이다(完)

洑稅關係로紛爭

四百餘名이洑稅拒絶同盟 安邊郡沙阜洑紛糾

咸南安邊郡培花面沙阜洑를利用하는千餘個里小作農民과他府郡地主合쳐百餘名은同洑主元山李秉均金能化兩氏와洑稅問題로紛爭이生하야지난十一月에沙阜洑納稅拒絶同盟을組織하엿다더라(安邊)

◇盟約書◇

沙阜洑는開設以來五十餘年間洑主에對하야同洑를利用하는地主及小作人間洑稅問題로何等紛爭이업섯다今年度元山府上里一洞李秉均과同上里二洞金能化兩人이同洑를買收以後로洑稅를二倍乃至三倍에達하도록高히引上하엿슴으로同洑를利用하는一般地主及小作人은一個洑主의魚肉을不免한다(中略)故로我等은本同盟을組織하고洑主의從來洑稅等의定方及其他種種의資料를參考한後公平한洑稅를決定함에서지洑稅支拂拒絶을同盟하고左記條件에記名捺印함

一、本會에서本問題를解決하기爲하야培花面沙阜里金其昌及同所嚴岐澤을代理人으로定하고本件着手로부터終局까지本件解決의一切權限을委任함

一、本件解決에要하는費用及其他本件에關한訴訟費用을同盟會員이負擔함

大正十五年十一月 日

(列擧氏名略)

『不應하면 洑稅不納』 關係者大會에서

洑主에게交涉코저

別項報道한事件에關하야前記同盟에서는十二月一日下午八時安邊郡培花面沙阜里禮拜堂에서成岐澤氏의司會로沙阜洑關係地主小作人大會를開한後左記事項을決議하엿는바參席會員은三百八十人이라더라

◇理由書(略)

◇決議事項

一、沙阜洑新定洑稅는無理함으로例年洑稅에比例하야一斗落『百五十坪』에一斗二升五合式納入하기로함

一、右記事由로洑主와妥協하되不應하는時는不納키로同盟함

一、不納同盟을背約하는者는洑主의走狗로認하고絶交함

一、洑主交涉委員으로左記諸氏를選定함

成岐澤氏外十一人

交涉結局破裂 ◇雙方의不讓步로

別項報道한바와如히昨二日前記交涉委員十二人과洑主金能化氏와同事件으로出張한安邊郡廳朴承浩中島兩郡屬과培花面長張河根氏가沙阜里金李節氏家에會合하야警官立會下에서日暮하도록討議와交涉이잇섯스나雙方의不讓步로交涉은結局破裂되엿는데雙方의主張은다음과갓다더라

그래도損害요 洑主側金氏談

沙阜洑를利用하는耕作畓은四十五六萬坪에지나지못합니다다시말하면百五十坪을一斗落으로하고 千斗落입니다 一斗落에두말이라도五十斗로六千말이니賣二千斗외다 六千말이나賣二千斗로今年度經費二千一百二十五圓과그外에아즉도消耗될것이百餘石이되고보니 洑主側에두말이라도損입니다 그以上엇더케며免除하겟습닛가洑稅로말하더라도他洑에比하여더한것이업고例年보다도不徹底한것이업슴니다가洑稅整理하나니 갓흔사람도잇슬것이외다(中略)最後로는訴訟外에別道가업슴니다그러면洑主對地主間에도小作人은何等關係가업슬것이외다

今年도別無異狀 地主作人側談

沙阜洑例年修理費用은六七百圓乃至八九百圓에지나지못하엿습니다今年度로말하더라도例年보다特別한異狀이업섯스니가間것이외다洑稅로말하더라도一斗落『百五十坪』에一斗二升五合(五升斗로)이면他洑에比하거나例年에比하야二升이더한것이외다

製麵業者打擊 麵子組合外에

咸南昌原郡昌原面各界는麵子産出地로全朝鮮的으로有名한信用을바다百八十戶의農村에麵子製造業者六十餘戶에達하야販路도容易하엿다하며賣出高年一萬八百圓에達하엿슴으로製造業者는勿論이고其農村의貧民들도그날그날의生活이나마그다지困難함이업시持續하여왓다는데最近에와서는製造業者들도六十餘戶全部가[illegible]지난九月에郡當局의指揮로昌原麵子組合을創立하고各地에麵子指定販賣人을選定한後個人의販賣를禁하고郡에서指定한指定販賣人에게만放賣하기로하엿슴으로一般製造業者들은個人에게苟且하게放賣하는것보다便宜함으로其에順應하야施行하엿다는데指定販賣所에서放賣가容易하안되엿는지他處에서는麵子를買收치못하고百餘圓을二十日或三十日이나經過하도록支拂치아니하는弊端이不少함으로高利金을借用하야元金을삼고하는製造業者들은經濟의大打擊은勿論이요其影響이波及되야一般貧民들은慘憺한生活을繼續하야胡米飯糊口에도窮塞한不堪한現狀임으로麵子製造業者들은對策을講究하는中이라더라(昌原)

鳳山講習發展

忠南禮山郡鳳山面에在한鳳山講習會는大正十一年에設立되고同面古道里朴陽和氏가會長으로選任된以來氏는精神上으로나物質上으로나多大한犧牲을하여同講習會를維持하여오든바氏가昨年부터病魔의侵犯을바든後로는同講習會가委靡不振하든中同面有志鄭偉氏가會長으로被選되여서今日外지熱心努力하여오든바去月中旬부터青年有志吳元根、同夫人金賢愛、韓島、朴熙錫四氏를敎員으로招聘하고高等科를增設하고講習會名稱을變更하여三和學院이라改稱하엿다는바同院敎員四氏는無報酬로敎育에獻身한다더라(禮山)

兩支局主催下에 新聞講演盛況

老人、婦人、少年은聽講不許 지난四日鎭南浦에서開催

本報鎭南浦支局과同業朝鮮日報鎭南浦支局聯合主催로朝鮮日報部長柳偉鍾氏를請邀하야特別大講演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同講演會는豫定과如히鎭南浦新興『礎石禮拜堂』에서『靑年、大道教青年團聯合』後援으로去四日午後七時半부터府內礎石里에在한礎石禮拜堂에서開催되엿는데同講演會場은高等係主任을비롯하야正私服巡査六七名이臨場하는同時에如何한理由인지는알수업스나聽衆을嚴格히制限하야老人、婦人及少年의聽講을不許하야場內는자못森嚴하엿다 그러나定刻前부터雲集하는聽衆은無慮五六百名에達하야立錐의餘地가無한

盛況

裡에主催側의金致登氏의簡單한開會辭가잇슨後會場이떠나갈듯한如雷의拍手聲을따라本社記者柳偉鍾氏登壇하야『新聞의使命』이라는演題로新聞은上府下府階級을不問하고一般大衆을相對로不偏不倚한公正한立場에서社會的教育을廣히普及하는同時에奬善懲惡、迅速報道를唯一의使命으로한다는것을論하고今日우리朝鮮內에在한新聞中에는어느特殊階級을擁護하는것과大衆을本位로하는新聞이有한데民間側을擁護하는新聞의評價를一一히例證하야써文明時代에在하야서新聞의主眼과未開時代에在하야서新聞의主眼이各各相異하다함을說하고朝鮮日報記者金俊淵氏는『朝鮮人의經濟的進路』라는

演題

로距今四十三年前甲申年今日(十二月四日)에韓國政界에風雲이危急하엿든古筠居士金玉均先生一派의改革運動當時의事情으로말머리를잡어내여서朝鮮의經濟史를가장組織的으로說明하야今日의慘憺한現狀에及하얏고今後이가는趨勢로今後依然繼續된다하면朝鮮人이破滅할것을痛論하고生途를得할唯一의進路는오직現下世界大勢에順應하야서그와共通되는思潮에依然興起하야消極히潮流하는외에他途가無하다고結論을終하엿는데兩演士의熱辯은場內를極度로緊張케하엿스며一般聽衆에게深刻한感覺을與한後同九時半에無事散會하엿는바實로近來稀有의大盛況을呈하엿다더라(鎭南浦)

永登浦面長의 引責辭職을肉迫

◇…背任怠慢을列擧痛罵 緊張裡의公職者會

始興郡永登浦面에서는去月廿日에面協議員選擧施行方法이不公平하다는것即鮮日人을差別하야日本人에게는『寅』을『覺』으로한것도有効라하고朝鮮人에게는『寅』을『인』으로『이』로한投票가無効라하야從來에朝鮮人五名日本人五名式의制度이든것을今年에는朝鮮人三名만나오게한事實이發覺되야即時新議員金泰濂氏外三人의連署로京畿道知事에게異議申立을提出한後尙今外지如何한決定을定치못하게된바에一般面民은極度로興奮되여서將次道當局의處置에多大한注目을하고잇든中近日에또다시同面書記公金橫領事件과其他水道料問題、學校組合問題等의內幕이暴露되여識者間에興論이날노喧하갈뿐아니라如此히無責任하고不公平한面長을그대로在職케한다는面의將來를爲하야서憂慮치아니할수업다하야지난五日午後七時부터面事務所內에서同面公職者大會를開催하고善後策을詩議하엿는데面長擁護派와面長排斥派의二派로分裂되여場內에空氣는極度로緊張하엿는데金泰濂氏로부터當局者는日鮮融和이니親善이니主唱하면서面長自身이鮮日人의差別을積極的으로할뿐아니라年千二百圓以上의收入이有한居獸場을豫算決定外지하고도于今外지設置하지아니하여서他面에收入으로돌아가고貧한面民에게莫大한稅金을負擔케하엿스며其他에一一히枚擧할수업는失策과怠慢이라하야出席에서辭免하라고肉迫하엿스며其他協議員으로부터도同樣의論議가잇섯는바場內는더욱緊張하야問題는容易히解決할수업게되엿슴으로後다시會合하여決定하기로하고同十二時三十分에閉會하엿다더라

모다나의失策

永登浦面長藤田信彦氏談

모든것이다나의失策이올시다 只今外지는監督官인郡守와도자조接觸하지못한關係로不得已政上延滯되는일이만혓슴니다 自後로는될수잇는대로郡守와親近하게할覺悟이올시다 그리고모든잘못은여러분이容恕하여주시면誠心誠意로面을爲해서犧牲할生覺이올시다

不正事實이頗多

面協議員金泰濂氏談

事實우리公職者로서는面을爲해서彼岸火災로만傍觀할수업소이번選擧에對하여서도確實히朝鮮人을만이못나오게한것이올시다그뿐아니라여러가지로不公不正한事實이만이잇스며이번問題에對해서는完全히面長이背任한것이올시다面長이萬一責任感이잇스면이런時機가오기前에斷然히解職하는게오른일이겟지오(始興)

工場主에게警告

反省이업스면大大的聲討 金勞盟執摺部臨總의決議

金堤勞農同盟에서는지난四日午後八時부터全琦煥氏司會下에同盟事務所에서第二回執摺部臨時總會를열고經過報告等이잇슨다음討議事項에들어가工場主日野喜之助는無故히同同盟의成長을阻害함과同時에勞働者의生路를抑壓하는이라하야該同盟에서는到底히默過할수업다고爲先警告文을發送하야覺醒을促키로하엿다는데萬一一週內에反省이업는때에는全社會的으로輿論을喚起식혀大大的으로聲討하기로하고資本主의走狗로잇는數名도反省이업는때에는積極的으로撲滅하기로決議하고會館建築費徵收方法等數項을討議한後同十二時에閉會하엿다더라(金堤)

小波瀾惹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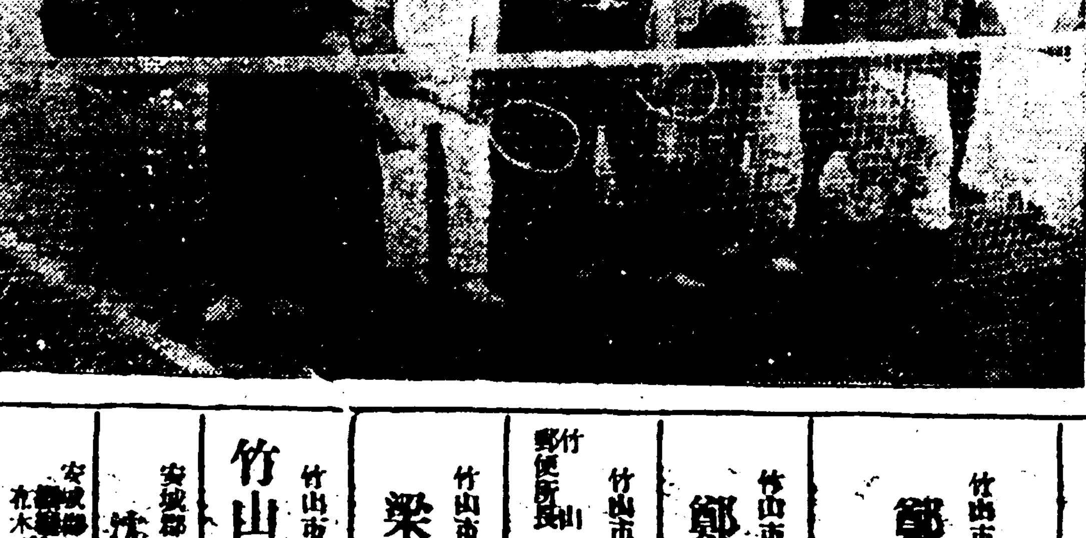
解散된矯風會 ◇다시總會召集

지난四日午後四時에全州邑內金駿熙氏家에『全州有志二十餘名이會合하야臨長鄭碩謨氏司會下에協議會를開催하고全州矯風會解散宣言한事件에對하야長時間討議하엿다는데그內幕을듯건대지난二日에矯風會를解散하엿다함은旣報하엿거니와會長及副會長이總會를召集하엿스나不過二三十名이出席하야그동안의經過와由來에對한事項만報告하고如何한理由도업시無條件으로解散하엿다는것과또는會長副會長이任意로宣言한것과여러가지로議論이잇든바오든七日午後三時에全州公會堂에서總會를開催키로可決한後左記準備委員을選擧하고同六時에閉會하엿다더라

◇委員 鄭碩謨、崔景烈、崔昇烈、安德賢(全州)

優勝은合德軍 唐津學生庭球

既報=本報合德支局主催인第三回全唐津學生庭球大會는豫定과如히去月二十八日에泛川面永化學院코-트에서開催되엿는데 全郡學校는十餘個所나되나參加한 團體는겨우二三에지나지못함으로 커욱히遺憾되나마不得已參加한 團體만이開戰한結果優勝의 榮譽는合德普校軍에게돌아갓다는데 合德軍은年來로大會에만히 出戰하야霸權을잡은 有爲한팀으로同大會에서도 第一回부터今般三回에외지連勝한强軍이라하며 同大會는 第三回로곳 올맛추는同時에情깁흔優勝旗는 永永合德軍에게授與되엿다더라(合德)



最後勝利者合德軍 ‖(全唐津學生庭球大會)

松興郵便開始

去一日부터開始된元山局의松興郵便은開始當日에書留六通 配達五五通 小包配達六二個 通常郵便八八通配達二千五通임으로開始當日의成績에依하면매우良好한成績이라더라(元山)

◇地方短評◇

◇群山 奉天張作霖軍은冷藏會社에不少한冷藏魚를注文하엿다는데그所用處는酷寒에忍耐치못하는軍卒에게以冷治冷法을實施하기爲함이라고

◇始興 求登浦面長藤田君은水道料를식삭하엿는데그理由는前面長도그러케한까닭이라고 事務引繼는細密히한面長

◇高原 人情도薄弱하지만은近日에는敎員벼문에도告訴?安會잇헤도告訴?참말高原인가?苦怨인가?

巡廻探訪 (百六十)

施設이整備된 産業과敎育 蠶業도朝鮮第一 (3)

寧邊一記者

◇蠶絲業 蠶絲業는自古로有名하야 養蠶業으로全鮮第一位에在하엿스며産繭額이年八千餘石을超過하야價로七十萬圓의巨額에達하며 本郡産業界의大要를記하면이제그發展과施設의大要를記하면全萬一千二百餘枚요 本道製造枚數가一萬四千三百餘枚며 原蠶種製造枚數가二分之三을占하엿고全桑園面積은四反步이며桑園所有者는九千五百九十四反步이며 七割五分에從하는農家戶數의七割五分에잇는한다 下에繼續事業에從事하는人士의事業狀況을記하면

◇神農園 金仲根氏의經營으로 蠶種製造를目的으로하고大正十二年에 着手하엿는데大規模의理想的 蠶室을建築하고大桑園을 施設하며犧牲的事業을삼는바 掃立이四十餘枚로繭産高二十石에 六千餘枚의蠶種을製造하는바 本郡蠶種製造家에第一位를占하엿다

◇迎春園 大正十二年부터全龍柱氏의 經營으로 只今에至하나 廣大한蠶室을建築하며桑園을設하는 等蠶業에留意하여毎年掃立이 四十餘枚에繭産高가二十餘石이며 製造蠶種이五千八百枚나되는바 明春에는一層擴張할에作하야 有望하리라한다

◇農寧園 靑年實業家鄭昌餘君의經營으로 大正七年에斯業에着手한바 年掃立이卅枚에繭産高가 十餘石이며製造蠶種이 三千二百餘枚요 桑園이六千餘坪에達하고 桑苗外지養成한다고한다

◇光農園 池熙鈞君의經營으로 今年度부터事業에着手한바 年掃立이二十枚에製造蠶種이一千二百枚에達하고 年收入이二千圓이라하며 將來諸般施設을待하여 發表하리라고한다 此外에有數한蠶業家로는國山面에 金致億氏一千二百枚張琴一千餘枚로 相當한成績을擧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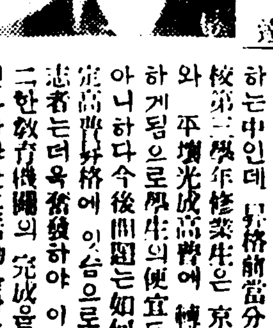
◇工業 本郡의工業이라고는모도가볼것이업다 잇다고하여도 小規模로日川品製作에不過하고 또한그勢力이아조薄弱하다 現在朝鮮人側을보면 陶器、木細工、洋靴、洋服、石工과寧邊特産인 柳竹製造業에從事하는幾個工業者가 僅僅히現狀을維持하고잇는貌樣이며 그中機械에對하야서는 相當한素質과發展을갓고잇스니 明紬、元紬等織造는 그製品이볼만하고그工藝의色彩를帶하엿고 그다음은織造上으로보아 本郡唯一인寧邊織造組合이니 小規模나마工場을設하야 機械工業의先頭가되여 工業上織物界에貢獻이잇다

◇寧邊織造組合 數年前에創立되여 全濟煥、朴明化、朴基陽等諸氏의 共同經營에係한바 本郡特産의明紬를爲始하여 繭紗、紡紗、甲紗、氷紗、花紬等을織造하며 年收入이四萬餘圓에達하야 本郡織造界의第一位를占하고잇는데 現在職工이男女共二十餘名이며 아즉小規模이나마 本郡의産業界를爲하야 同組合의事業은 多大한도움이된다하겟다

◇次回는河東◇

教育界

教育界는年來長足의進步로써道內에는本郡에 過할者無하니小學程度로부터中等程度에至하기까지比較的他에比하여教育機關이完備하엿다고할수잇다 峻嶮한妙香山脈은蜿蜒히닷고 洒麗한淸川江水는滾滾히흘너秀麗하고도深邃하게 덩여노흔當地는實로 心神을發하고學을修하는者必히發을 이곳으로貧할것이다 全郡의教育狀態를보면 一個의公立農業學校와八個의公立普通學校를除한外에十數의私立學校와 學術講習所二個所와書堂이一百八十餘에達하는바 此를略記하면如左하다



◇私立崇德中學校 本校는美監理敎經營에係한 中學機關으로서 隆熙元年에創立하여 발서 十數年의長久한歷史를가젓다 當時美國宣教師樂理起氏의設立으로 幼年教育을施하다가去大正二年時勢에伴하야 更히高等科를併置하고 爾來만흔人才를發成하야 卒業生이數百을算한다고한다 年前一般의向學熱과時勢에따라 更一層同校는擴張의必要를感하여 完全한指定高普로 昇格코저地方有志로부터 一萬八千圓의巨額을除附募集하엿는바 現在半洋式校舍를新築하고 中學으로서完全한諸般設備를具하려고한다 一年經費萬餘圓은 專혀『미슌회』의負擔이고 目下內容充實을圖하는中인데 昇格前當分間은本校第三學年修業生은 京城培材와 平壤光成高普에 轉學을許하게됨으로學生의便宜도 적지아니하다今後問題는如何튼 指定高普昇格에 잇슴으로一般有志者는더욱奮發하야 이唯一無二한敎育機關의 完成을期함에잇다하야만흔活動을하는中이라한다

◇寫眞說明◇ 上은寧邊崇德學校 下는同校長史越氏

祝東亞日報安城支局發展

安城郡竹山市場 梁在元

安城郡一竹面古鎭里 安奎承

竹山市場 鄭榮根

竹山市場 鄭善浩

竹山郵便所長 水野鎭一郎

竹山市場 梁漢錫

竹山市場 竹山共濟組合

安城郡竹山市場 沈相年診療所

安城郡竹山市場 布木商 金昌商會 金[illegible]培

安城郡竹山市場 穀物貿易商 陳漢志 共榮商會 徐丙昌

安城郡竹山市場 綿絲布木商 鄭漢奎

竹山市場 朝鮮料理 永春館

竹山金融組合理事 松尾文次

竹山公立普通學校長 原口峰三郎

竹山公立普通學校訓導 李在夏

一竹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一竹面長 李容鎬

二竹面長 李泰榮

李鍾七 孫洙根 李纘載 禹鍾一 尹完熙 姜漢泳 權商悳

祝東亞日報通川支局發展

通川郡鶴溯面通項里 金演周

通川郡鶴溯面五楼里 李[illegible]淡

通川郡通川面馬岩里 金成[illegible]

通川郡通川面芳洞里 劉錫堯

通川郡庫底港 貿易商 金秉七 李忠烈 李星福

通川郡庫底港 米穀 洋襪 和洋雜貨商 大東商店 主任 金長煥 電話一一番 電略(ㅁ)又ハ(タイ)

通川郡庫底 布木雜貨商 金成基

通川郡庫底 勞働組合一同

通川郡庫底 旅館 李容九

通川郡庫底 貿易商 李學淳

通川郡庫底 三山藥局 主 張文謙

通川郡庫底 元山元一釀酒所出張所 主 金[illegible]

通川郡庫底 李承春

通川郡庫底 私立通明普通學校 職員一同

通川郡庫底 弘濟局藥房 主 金鍾九

通川郡庫底 自轉車商鋪 劉[illegible]俊

通川郡庫底 江原道評議會 特別議員 金翼濟

通川郡庫底 救世醫院 院長 朴泰亨

通川郡庫底 林道明

通川郡庫底 貸金業 崔鍾奭

通川郡庫底 沈[illegible]

通川郡順衛面五柳里 金寅濟

十二月二十日 魚大成

十二月二十日 吳南根

十二月二十日 李鄕雨

主 吳[illegible]梅

張奎遠

金[illegible]仲

朴[illegible]遠

布木商 黃[illegible]

金[illegible]演

通川郡鶴溯面 職員一同

通川郡鶴溯面 私立新秀學校 校長 徐琦勳 學監 陳正源 教員 池鍾善 教員 安奭中 教員 崔玉能 女史

主 陳尙源

陳台善

池[illegible]

通川郡鶴溯面 通川炭鑛 電話一〇番

職員一同

通川邑 醫師 金淇玉

通川邑 金仁瓚

通川邑 金振億

通川邑 海東醫院 院長 朴鳳秦

通川郡 公立普通學校 評議員 [illegible]昌敏

通川郡 金龍柱

通川郡 職員一同

通川郡 致力青年會 會員一同

ClibPDF - www.fastio.com

映畫小說 탈춤 (二十七)

沈熏 作 (禁無斷撮影)

결혼식장

○식장에달넌다는밤

▲눈가처럼면사포를쓰고꼿다발을안은신부와들러리

▲혜경、품고잇든꼿한송이를손으로목아진몰잡매여거가지고는 화만을 한닙씩쏙쏙쐬겨 바두바다에홋터뜻는다

▲꼿닙한송이가 거긔로 떠어진다 혜경은 구두바닥으로 그꼿송이를욱채어버린다

○의장

▲행여자가풍금을친다 —따—결혼행진곡—

▲참례한손들은긴장한다

▲혜경、상여를메고나가는상두군의소리를 듯는듯 삼문터에 머리를부빈다

▲들러리에게부축되어이러스는신부

▲목사가단압헤나와슨다

▲두편문에 마조열니며 신부와신랑이마조나온다

▲연미복에「실크햇」을들고점잔아거러나오는신랑을보고놀라는준상의처남

○괴상한그림자!정면들창에나타나어른거린다

▲몸을반이나 일으키며 신랑을뚤어질듯이주목하는란심

▲신랑、그시썸은그림자를 바라다보고 한거름주춤물러 스다가아래스배에힘을주고압흐로것는다

○창밧게홍렵、동창에매여달녀다가뛰어네려 사방을 둘러보고급해서엇절줄을모른다

「홍렵은 회송소래인줄만알고 종소리나는곳으로쫏차와보니 뜻밧게준상과 혜경의 결혼식이거행됨을보고 그대로잇슬수업섯다」

▲홍렵、무엇인지결심하고 례배당문압흐로도로뛰어나간다

○례배당문압

▲신랑이타고온 자동차에 뛰어오르며 운뎐수에게 운뎐을명한다

▲운뎐수듯지안는다

▲홍렵、운뎐수를한주먹에 따려눕히고운뎐을하야어대인지급히모라간다

▲신부 마조나와 거진어개를겻고스게된신랑을검은눈으로 본다 가만가만이 갓가워오는 신랑이해골의탈을쓰고양상한 닛발을버리고 달녀드는것마가치보인다

▲놀라서주춤주춤하는신부

▲성경을들고단압중앙에위엄잇게슨목사

▲신랑신부、뎡한자리에슨다

▲목사 긔도를인도한다

▲일동、머리를숙인다

▲시들은 백합꼿가튼신부의얼굴 이슬을머금은듯 눈물의흔적이마르지안는채잇다

▲반쯤감은 신부의눈

▲여러가지로변한 일영의 환영이 지나가기도하고 정면으로 달려들기도한다

▲비웃는일영—

▲저주하는일영—

▲달밝은밤 한강언덕 모래밧헤서 손길을마조잡고 거닐든때에 저와일영—

▲눈감고 긔도를인도하는 목사의입

「거룩하옵신 하나님께서 「아담」과「이와」를내으심가치 이두사람이 영원한 배필이됨으로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돌리고……」

▲점점크게 또는 신부의눈

▲시골집 늙은부모와 너어동생이 남의집문전에서 거지꼴을하고 엄동의눈보라를 떨며구걸하는꼴—

▲칼로심장을 찔러 자살하는일영—

▲홀깃흘깃 겻눈질을하야 신부를흘겨보는신랑

▲해골의 탈을쓴준상이가 달녀들어목을누르는듯

▲신부놀래여 쓰러지려 한다 들러리들이부축을한다

▲신부머리를 숙인다 여러가지환영이뒤석겨서 일시에 번개ㅅ불과 가치머리우로 홰홰달녀간다

○준상의집문전

▲홍렵、자동차에서 뛰어네린다

▲뎡원에서 공을가지고 노는준상의딸과서너살먹은아들

▲홍렵、가가에가서 과자와과일을사가지고와서어린아해들을 꾀여낸다

▲큰애는 안으로드려보내고 자근애를 살살달래서 자동차안에다실고 운뎐수를 잡어이르켜운뎐을식힌다

▲성화가치 재촉하는 홍렵

▲자동차 움직인다

▲씽씽지나가는길거리

▲자동차압흐로닥쳐오는사람과 뎐차 자동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례배당

▲목사 신랑을향하야

「림준상 이신부가병이들든지 구차하든지 세상을떠나는날까지 보호하고 길이사랑하겟나뇨?」

▲신랑 고개를숙이며

「비그리하오리다」

▲목사 신부를 향하야

「리혜경 아신랑이병이들든지 가난하든지 영원히 섬기겟나뇨?」

▲신부 입살을깨물고 대답이업다

▲일어서서 주먹을쥐고 무어라고두덜거리는 준상의 처남

▲눈치를채고 그겻헤가잇다가 붓들어안치는김봉석

▲잔뜩 흥분이되야 금새악이라도한마듸질을녀고벼르는란심

▲영문도 모르고 또서둘녀올나와어리둥절하고 안젓다가 점볼안한눈치가보이는 혜경의부친

○큰길로 최대속력을내여 풍우가치몰아오는 홍렵이가 탄자동차는거의거의례배당까지다다럿다

新郞……朱仁圭
新婦……金靜嬉

時調란무엇인고 (十二)

가람 李秉岐

五、頓呼法

頓呼法은 平叙의語勢를갑자이變하야 現今보이지안는것을잇는것처럼 生이업는것을生이잇는것처럼부르며 또는지금것하든말을다른話題로變함을니름이니 엇더것은 擬人法의語句를가진것도잇다

西山에 日暮하니 天地에가히업다 梨花에月白하니 님생각이 새로워라 杜鵑아 너는누를그려 밤새도록 우느니

이 時調의終章이 곳頓呼法을쓴것이라는것도 擬人法과가치詩調에만히쓰일수잇는것이다

六、誇張法

誇張法은 事物을實狀보다도 誇張하야 過度히크게하든지 過度히작게하든지하야 말하는것이니 自來詩歌 漢詩 文辭 演說等에가장만히써왓다 이法을쓴것이만이잇다 『白髮三千丈』『魚目高泰山』『乾坤日夜浮』『獨山兀硎房出』이라는 이따위들이곳그것이다 우리時調에도

白頭山에 노피안저 압뒤ㅅ들 굽어보니 南北 萬里에 내생각 새로워라 간님의精靈게시면 눈물질가 하노라

하는것은얼마쯤이法을쓴것인데 다시말하면어느엉러리를가지고 엄창나게하는말이니잘만쓰면 詩人의特色을나타낼수가잇는것이다

七、漸層法

漸層法은語句思想이점점強하게 점점크게 점점놉게 점점깁게하는法이니

이몸이 죽어죽어 一百番고처죽어 白骨이 塵土되고넉이라도잇고업고 님向한 一片丹心이야가실줄이 잇스랴

하는詩調가그一例다

八、問答法

問答法은 二人以上의 사람으로하여 서로問答케 하는法을이름이다

사랑이 어떠트냐 둥그드냐모나드냐 기드냐 져르드냐 밟고남아 자일느냐 하그리긴줄은모르되 끗간데를 몰래라

네집이 어데메뇨 이뫼넘어긴강우희 竹林푸르고 외사립다닷는데 그아페白鷗떳스니 게가물어보시오

하는따위니 이法도흔히擬人法과幷同하는데 平叙보다曲折變化가만히잇서 매우滋味스러운것이다

列叙法

列叙法은 여러가지事物을가지고一括치아니하고각각散列하여쓰는法이니

靑山이寂寥한데 麋鹿이벗이로다 藥草에맛들이니 世味를니즐노라 夕陽에낙대를메고나니 漁興겨워하노라

하는따위다 이러케句語의意義가直接으로連續한것은업서도서로照應하여 그意義를統一케한것이다

頻頻한音樂會에對하야 (五)

朴慶浩

그리고音樂會에 演奏를하려면 敎師에게 批評을밧은다음에할것은勿論이오 그曲調의樂想을充分히理解하고技術이그樂想을表現할만한程度에 니르게되여야 出演할수잇다 어느作品이든지 正當히 세번을連해하여보아서 一次의失手라도업시된다음에 公衆압헤서演奏하라는말을 音樂雜誌에서본것이生覺난다 우리演奏者들은 세번은말고 한번이라도 아나 한곡節이라도 올케한다면 좀나흘상십다 우리中에도 相當한實力을가진이가 몃분잇다 구태여 그姓名을 쓰지안커니와 나는 이분들의만흔努力을 間切이빈다 이런音樂會가 濫造되는것과 또模範的音樂會를開催하는데는 이분들의 努力이 큰効果가잇슬줄밋는다

三聽衆의注意할것

물건너나라로부터『야지』라는것이 半島에 輸入된以來로一般의集會라는것은 말이아니다 오히려『야지』의 原産地에서는『야지』를 朝鮮에서使用하듯 그러케하지안는다 그러나 朝鮮에『야지』라는것은 참을수업스리만큼 싱겁고도 구역이나는것이다 그들은 甚至於禮拜席上에서나 追悼會에서도 소리를맥々지르며 야단을하는때가잇다 그러니까 音樂會갓흔곳은 이런者들이 自己의獨舞臺로아는것이 容或無怪라고할지모르나 實狀인즉 寒心하기 싹이업는現象일다 그들에게누가만일 紳士가아니요野蠻이라고하면 그들은 옷옷을벗고 달녀들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野蠻의行動을 간데마다 演出한다 極度의靜肅을要求하는音樂會場內에서 소리를지르고 마루를구르며 樂士에게 辱說을하며 나려오너라 올나가거라 쉬ㅣ쉬等의 亂暴한態度는 아모리研究하여보아도 文明人의行事는아니다 웨이지경이 되기를 그다지도즐겨하는가 웨조흔것은 내놋코 조차못한것만 골나가면서 배호는가?

우에말한바와가치 音樂會는 極度의靜肅을 要求한다 그런故로 조금이라도 亂스러운 喧騷라든가 場內의氣分을 흐리게하는行動은 決斷코하지말것이오 또쉬ㅣ쉬소리는 他人의拍手를 阻止하는것인듯하다 또히야外 拍手가 니러날때에는 그것을阻止할必要도잇슬듯하다 그러나 닭이나지를쫏드시 쉬ㅣ쉬ㅣ하는것은 엇제든지 아조不吉한 表情이다 더구나 西洋風俗에는 만일 講演會나 音樂會갓흔데서쉬ㅣ소리가나면 그것은 그演士나樂士를 歡迎치안는다는 表徵이기때문에 西洋人들은 이것은 큰侮辱으로안다 그래서 例 歐人音樂會에는 이쉬ㅣ소리듯기싫혀서 批評할마음이업다는 西洋人音樂家의말을 여러번드럿다 이것이야 勿論充分히理解하지 못하는말이겟지만 우리로서는 반드시注意하여야 되겟다 어느集會에서든지 쉬ㅣ소리를一切禁하자 ―그리고발을구르며 大聲疾呼하는것은 運動場에서나 할만한것이지 音樂會에서는 絶對로못할것이다

또너무些少한말갓지만은 우리(男子들)는 室內集會所에는 帽子벗는習慣을기르자 室內에서 帽子를벗는것은 禮儀의一條일뿐아니라 公衆의有益을圖하야도 當然한일이다 勿論[illegible]에서는 關係업겟지만 劇場에서라도 脫帽가正當하며 더욱이 靑年會講堂이나 禮拜堂갓흔곳에서는 반드시帽子를벗는것이 紳士의行動이다 이後부터는 音樂會에서 正服巡査와갓치 帽子를쓰고안졋는이가업기를또한斷한다 말이 너무 기러저서 未安하다 그러나 어말이 少許라도 効果잇기를바라며 音樂會를開催하려는이들과 音樂家여러분과觀衆여러분은 特히[illegible]하야 아직幼稚時期에잇는 우리樂壇을잘길너주기를바란다

一九二六、一一、二九

가갸날에對하야

韓龍雲

나는新聞紙를通하야가갸날에對한記事를보게되엿는데 그記事를보고 무엇이라고表現하기어려울만치이상한印象을바덧슴니다「가갸」와「날」이라는말을따로떼여노면누구든지 흔히말하고듯는것이라 너무도심상하야아모刺戟을주지못함니다 그러나그러케 쉽고흔한말을모아서「가갸날」이라고한이름을지어노은것이그리새롭고 반가워서 이상한印象을주게됨니다 가갸날에對한印象을구태여말하자면오래간만에 문득맛난님처럼익숙하면서도새롭고 깃부면서도슯흐고자하야그衝動은아름답고그感激은곱슴니다 또한편으로는바야흐로장여노은爆藥처럼무서운힘이 잇서보임니다 이것은조금도加減과裝飾이업는나의가갸날에對한率直한印象임니다 이印象은無論흔히聯想하기쉬운民族觀念이니祖國觀念이니하는것을떠나서또는무슨까닭만한理論을떠나서直感的 거의無意識的으로바든바印象임니다 그러나그러케純한直感的印象그것이곳人生의모든것인지도모르겟슴니다「가갸날」이라는이름도매우잘지어진듯합니다 無論「가갸날」이라고아니하고도얼마든지달리일홈을지을수가잇슴니다 그러나、아모리지어도「가갸날」가치 써르고쉽고반갑고힘잇고 또한 여러가지로조차가 어려우리라고 생각됨니다 전에도우리말을 연구하자느니 우리글을 만히쓰자느니 하는말이 만히잇섯지만 그러한말들이 多少의効果를내엿고 또압흐로그러한일에 對하야 아모리 조흔말과 아름다운글을 만히낸다하여도 가갸날과가치쉽게알고 길게잇치지아니할수가 업슬듯하외다 이러한意味에 잇서서 가갸날의紀念을 創案한이는 우리무리중의 큰일을 한사람의하나이될것이외다 가갸날에 對하야는 누구든지스스로 힘쓸일이지마는 特히言論機關은 責任을지고宣傳하며 스스로 그뜻을實認하야말과글에맛도록힘써야할줄로암니다 天然、바다어덕의적은돌에서스스로게으름속에 장사지낸 나로도「가갸날」의 힘을입어닷을갈고돗을드는큰배의 氣를내여 아래와가튼 詩를쓰게되얏사외다

아아 가갸날
참되고어질고 아름다워요
「축일(祝日)」「제일(祭日)」
「데ㅣ」「씨슨」이위에
가갸날이 낫서요 가갸날
쯧업는바다에쑥소서오르는해처럼
힘잇고빗나고두렷한가갸날
「데ㅣ」보다읽기조코「씨슨」보다알기쉬어요
입으로 젓꼭지를물고 손으로 다른젓꼭지를 만지는 어엽분 아기도일너줄수잇서요
아모것도 배우지못한 계집사내도 아르켜줄수 잇서요
「가갸」로말을하고 글을쓰서요
혀쯧에서 물ㅅ결이 솟고 붓쯧에서 쏫이피여요
그속엔 우리의 향긔로운목숨이 살아움직임니다
그속엔 낫익은 사랑의실마리가 풀니면서감겨잇서요
굿세게생각하고 아름답게 노래하야요
검이어 우리는 서슴지안코 소리처「가갸날」을 자랑하겟슴니다
검이어 가갸날로 검의가장조흔날을삼어주서요
온누리의 모든사람으로 가갸날을 노래하게하야주서요
가갸날 오오 가갸날이어

([illegible]에서)

보양유치원 가극대회

시내 [illegible]동에잇는 보양유치원(保養幼稚園)에서는 창립한지 불과이개월인데 일반사회에 널니 알리기 위하야 초대권(招待券) 천매(千枚)를 발행하야 금칠일오후칠시부터 종로중앙청년회관에서 가극대회를 개최한다고합니다

온성부인야학

함북온성(穩城)군영충면에잇는 영충소년회에서는 부녀들의 상식을향상식히기 위하야 야학을당지 김요진(金耀振)씨 집에서 지난십일일부터 개학하엿다고합니다(온성)

남포동화대회

진남포(鎭南浦)비석소년소녀회에서는 지난이일오후칠시부터 비석리 엡윗청년회관안에서 동화대회를개최하엿는데 명예회당라상근(羅相根)군과 사회로아래와갓치 여러분의자미만흔동화가 잇섯스며 사십명의소년과수백명의 만흔환영을바덧다고합니다(진남포)

金言 몸을닥는데에는 克己로써 終始하라 —(西鄕南洲)

博士의推奬하는唯一의藥効的齒磨
仁丹のハミガキ
인단의 니닥는약
●本品은左記의高貴料를配合함
(殺菌料虫喰防止) (制酸料虫喰防止) (齒牙質保護) (齒齦强壯料) (口臭除去料) (消炎料) (調味料) (防腐料) (漂白料) (芳香料)
九錢 ハミガキ充滿 十二匁 實物大

消化劑 口香料 仁丹 四國士官任用 ポケット必需
完全한 懷中藥
食後에仁丹
消化第一
胃腸을强케하며心神을爽快히함

絶對로舶來品을凌駕하는國產優秀品
仁丹의体温計
商工省의檢定合格率 仁丹의体温計는 九割八八 舶來의体温計는 八割八六
M號平型 二圓卅錢
M號棒狀 二圓五十錢

ClibPDF - www.fastio.com

新築披露大賣出

高麗人蔘

高麗蔘精

本社는人蔘專門으로創業한지十有三年에天下世界로하야금一個會社의存在를記得하게됨은弊社의能力이아니라靈草의神力이며大方諸彦의眷愛로思하는바今月에尤히自祝하는바는新建物을落成하고天下高貴紳士의許多注文書와電報文을明窓淨案에서拜讀함은光又光榮이올시다人蔘의神力은重言을不要하고明晰하는바取扱者의正直誠信을隨하야其神力의發輝가著하나니弊社의自勵하는바는此에置重하야進前을期하나이다健康을願하고壽考를祈함은吾人의無上한欲望이라社會의文明에作하야其發展을遂함으로人蔘의需用이日廣하고價格이年騰하야十萬斤以上의量이常히不足을感하니此는今日의大勢이라今秋新蔘은産額이半減하와需用家의準備心을喚起케되온바昨年今日에對照하면猶히値下됨은一大福音으로思하오나將來의推移向上은預期하는바이오니時勢를察하고趨向을定하야致誤點이無함을願하는同時에一言의警告를發하오니愛情을表하야國産을保함은志士의本領이요廉價를取하야榮養을誤함은愚人의常態라本場人蔘의減産을機會로하야關東貨「廣蔘」流入이不鮮하니此에其取捨를愼하야我의天惠地鍾의靈藥으로侵害를免하도록注意를要함

但特賣期는一個月을限하야需用家에敬意를表함

自十一月二十八日 至十二月二十八日

吾人의無上한欲望은身體健康과壽命延長이라故로藥品에置重하야金을不惜하고尋常草劑라도材를擇取하거든況此貴重한靈品이리요今日人蔘에對하야製藥致라하는名稱이有하니劣蔘을謂함이라疾病은死門이오醫藥은生門이라生을求하는藥에劣蔘을用함은大不合理라

◉元品特天（正味十六兩重）

十五片	一斤	三十三圓
二十片	同	二十三圓
三十片	同	十七圓三十錢
四十片	同	十六圓四十錢
五十片	同	十五圓八十錢
六十片	同	十五圓二十錢
八十片	同	十四圓六十錢
百片	同	十四圓

◉元品甲天（正味十六兩重）

十五片	一斤	二十五圓
二十片	同	二十圓
三十片	同	十六圓八十錢
四十片	同	十五圓九十錢
五十片	同	十五圓三十錢
六十片	同	十四圓七十錢
八十片	同	十四圓十錢
百片	同	十三圓五十錢

◉太極標（正味十六兩重）

（此品은本社獨家製品으로病尾釜片髓尾等은一切拔去하고色白堅强者로極精選者）

十五片	一斤	三十八圓
二十片	同	二十八圓
三十片	同	二十圓
四十片	同	十九圓
五十片	同	十八圓
六十片	同	十七圓
八十片	同	十六圓
百片	同	十五圓

◉優等品（正味十六兩重）

十五片	一斤	三十六圓
二十片	同	二十六圓
三十片	同	十八圓
四十片	同	十七圓三十錢
五十片	同	十六圓六十錢
六十片	同	十五圓九十錢
八十片	同	十五圓十錢
百片	同	十四圓五十錢

◎細尾	一斤	七圓二十錢
◎大尾	同	十二圓
◎中尾	同	八圓七十錢
◎松曲蔘	同	九圓（此品은正味十四兩派入作封）
◎熟芊	一封	一圓

◉人蔘蒸菓

大函	四圓五十錢
◎同 中函	三圓五十錢
◎同 小函	二圓五十錢

◉高麗人蔘精

五日分	一瓶	一圓
十日分	同	二圓
二十日分	同	三圓五十錢
三十日分	同	五圓
六十日分	同	九圓
九十日分	同	十二圓五十錢

◉人蔘粉末

三十日分	一瓶	一圓八十錢
六十日分	同	三圓

蔘

合資會社 高麗蔘業社

朝鮮開城北本町

電話長四八番
振替口座京城三二九九番

讀者가 만드는 新春의 本紙

―독자의솜씨로지면을장식하며 독자의명령으로기자가활동해― 「讀者와記者欄」의 새消息

◇독자(讀者)와기자(記者)의 사이를 두터웁게하고 가까웁게 하고 다정스럽게하는 동시에 독자의 힘과 정성과 의견으로써 우리의 지면으로 하여금 상쾌한 화의 옷밧을만들려고 본보가 일족부터 시작하야 만년히 독자제씨의 환영을 밧어오든 「독자와기자란(讀者와記者欄)」은 그동안 중지되엿든 우리스사로도 항상부족히 역이는 결점을 그대로 고치고 잇섯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병인(丙寅)의 한해가 저물어가고 정묘(丁卯)의 새해를 당하게 되야 우리 기자 일동은 독자제씨에게 새로운 의미에서 찬동을 위하야 밤으로 낫으로 생각하고 궁리하고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리하야 언제든지 독자 본위의 신문을 만들려는 우리는 그동안 수차발표한 바와 가치 적으나마 약간의 상금을 걸어 론문(論文) 문예(文藝) 등 독자제씨의 옥고를 모집하엿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발표하엿지)

◇이제 다시 독자와는 특별한관계를 가진 「독자기자란」을 위하야 독자제씨의 힘과 지식을 빌려 아래와 가티 몃가지 제목을 발표하니 다 이는 독자가 친히 어떤 재료와 할 만한 기사를 아울러 독자의 명령에 의지하야 활동한 기자의 기사를 실어오려함이니 이것이 잘되고 못됨은 그 칭찬과 허물이 전혀 독자제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독자로 안저 기자가 되어보는 것도 일종의 흥미오니 아래의 규정대로 만흔 투고를 앗기지마소서

◇應募規程◇

◇第一題 세상에는 역경에서 순경을 맛은 사람이 가진 방면으로 허다합니다 문견걸식에 리사방에 머슴살이에 행랑살이로 칠면괴하다가 생활의 안정을 어든 사람 돈에 팔리고 세력에 시달리고 유혹에 빠지고 모해에 돌어 뜻업는 살림사리에 가진 고초를 겪다가 참된 생활을 지은 사람 고학으로 로동으로 변신으로 심히 오르란 신만고를 겪다 지내고 성공과 활동의 로대를 어든 사람 죄악에 빠지어 사회의 버림을 밧고 후우의 뜻을 품고 세상을 등지엿다가 새길을 찻잡고 압길을 개척한 사람등 ― 이가치 역경에서 순경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는 허다한 파란과 진귀한 경로가 한두번이 아니엿슬 것입니다 이가튼 길과 사실을 몸소 체험한 분이나 (남녀불구) 그가튼 사람을 잘아는 독자는 그전후사실을 가장 읽기에 자미잇고 알기에 간결한 기사를 만들어 투고하소서 그리하야 역경에 헤매는 형데자매의 압길에 대하야 만흔 참고와 조흔 거울이 되게하소서

期限來年一月五日外지
投稿用紙와長短은隨意
◇要添寫眞◇薄謝進呈

◇第二題 돈이란 참 조흡니다 그러나 낫붑니다 더구나 지금가튼 돈세상에서는 더욱 조키도 하고 낫부기도 합니다 잇서도 원수 업서도 원수 도 원수! 안생겨도 원수! 되는 경우가 지긋지긋이 만습니다 사랑이란 참 조흡니다 그러나 낫붑니다 더구나 지금가튼 사랑시대에서는 더욱 조키도 하고 낫부기도 합니다 어더도 원수 일허도 원수! 되는 경우가 지긋지긋이 만습니다 비극적 운수 아닌 원수! 돈이 원수야 사랑이 원수야 하는 탄식 가부를 만한 자긔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간단하고 자미잇게 적어보내주십시오 그리하야 「돈과사랑」으로 생겨나는 우리 사회의 가지가지 현상을 한곳에 모아보십시다 돈 원수 사랑 원수 한곳에 석거도 조코 따로따로도 조흡니다

期限今月二十五日外지
投稿用紙는葉書에限함

◇第三題 오는새해는 뎡묘(丁卯)년입니다 그리하야 뎡묘년에 난 사람이면 이 『뎡묘』는 어떠한 셈을 가지고 가장 흥미잇고 실익잇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의 『외어리』를 만들려고 이대목을 추려엿습니다 즉 새해에 환갑을 맞는 분의 래력과 과거 륙십일년간 조선사회의 가진상태를 엿보이잇는 자는 것이니 얼마나 흥미잇고 실익잇는 과시이겟습니가 그런데 이 환갑되는 분은 경성부내만 하여도 수백명일터이며 또는 남녀 직업 계급 래력 등 가지가지 구별과 차별이 허다할 것으로 누구를 엇는지 뎡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뎨목에 한하여는 독자의 선택에 일임하야 『이런사람의 래력을 들어보라』는 명령에 의지하야 기자가 활동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남자든지 녀자든지 비부귀천을 물론하고 래년에 환갑되는 분을 아는대로 추천하여 독자긔자께로 명령을 나리십시요 (자긔부형을 추천하여도 매우 조습니다)

期限今月十五日外지로
住所、姓名、職業、男女別子女有無其他簡單한來歷等
京城府內讀者에限함

(一) 記者指示 讀者執筆 逆境에서順境으로
(二) 記者課題 讀者記事 돈과사랑이원수!
(三) 讀者命令 記者活動 丁卯生도가지가지

(投稿는一切東亞日報社讀者記者係로하되 投稿者의紙上匿名은無妨하나原稿末端에住所와姓名을明記하야주시옵)

男便打殺했다고 親家一族二名을告訴

친뎡아버지와됴부음바를 남편죽엿다고경찰에고소

충주군고성면룡산동(忠州郡古城面龍山洞) 최봉호(崔鳳鎬)(三四)의 안해박씨(朴氏)는 그아들 최문곤(崔文坤)(八)과 함께 친뎡 아버지 박치정(朴致正)과 박근수(朴根秀)와 그 아버지 박인선(朴仁善) 리(利)씨에게 죽은 최봉호의 원수를 갑흘 작정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최봉호는 본래 신병이 잇서 오다가 지난이십일에 그 친뎡으로부터 관계로 생활비를 만족엇는데 그 죽은 원인은 지난 구월십일일이 처조모의 생일임으로 봉호가 처가에 가서 술을 먹고 자긔 처부에게 돈을 달라고 주먹질을 한 일이 잇섯는데 그가 처한 것이라 하며 배후에는 교사자도 잇는 듯하다는바 삼부자는 동주재소에서 취조를 밧는 중이라더라(신의주)

족하가 堂叔毆打

필경경찰에 고소되여

전북옥구군대야면죽산리(沃溝郡大野面竹山里) 고일환(高日煥)의 집에서 지난십일일이십구일에 고씨종중계곡(高氏宗中稧穀)을 밧기위하야 온문중이 모아서 계곡을 바드며 일변으로 장부를 정리하든중 동리 고창환(高彰煥)이가 나타나 싸움을 하다가 ... 고창환이는 자긔의 당숙인 고씨를 구타하야 ... 고소하엿다더라(군산)

傳道人六名 生死不明

일년동안소식업서

함남원산부 관교동(咸南元山府 館橋洞)에 본부를 둔 동아긔독교회(東亞基督敎會)에서는 전도인 몃사람을 남만주 디방으로 파송하엿는데 작년십월에 ... 소식이 업서 ...

(尹學榮)(?) 함북회녕읍(咸北會寧邑) 남감리교회(南監理敎會) 목사 모씨로부터 온 동지를 보면 이상 전도인 여섯 사람은 조선○○단(朝鮮○○團)들에게 밀정으로 인증밧게 되며 한 사람은 ... 에서 돌이 암살을 당하고 길림성에서 네사람이 암살을 당하엿다 하나 아즉 확실히 몰은다더라(원산)

◇사진은고창명물선운산일부

精米機에轢死

평북곽산시(平北郭山市) 전평안상회(平安商會)를 빌여 건선천(宜川)인 백운무(白雲武)게 근식(桂根植)의 일명이 인수경영하는 곽산장날에 쌀을 팔아 량비하고 부모에게 겨정을 들을가 하엿든지 그대로 봉상할 작정으로 현미로동하기로 결심하고 미곡상에 지난이일 오후두시경 ... 그게에 부되처 머리가 깨여져 죽음인데 작년에도 동디안흥면안의동(安興面安義洞) 사는 홍귀범(洪貴範)이란 칭년은 일 시작하는 첫날에 무참히 그게에 닥처 뢰진탕(腦震盪)으로 죽엇는데 이제 그 죽은 순간여지의 경로를 들으면 그는 얼마전에 결혼한 부부인으로 지난일에 ... 상하고 금년에 또다시 사람이 죽으니 그게에 무슨 액(厄)이 잇다고 도 말하며 그부모는 처가(妻家)에 간 줄만 알엇다더라(곽산)

大連長春間의 大自働車競走

全滿洲同好者들이

大連在住하는日·英·佛各國의自働車愛用者及自働車會社員等을中心으로奉天其他에서選手를參加케하야全滿洲同好者들로써今冬大連長春間의長距離自働車競爭을行할計劃을進行中이라한다

來年度極東올림픽엔 印度도參加請願

來年中國에서開催되는極東올림픽大會에對하야日本體育協會에서는十一月五日文部內務兩省을經하야六萬餘圓의補助申請을하엿섯는데三日朝에十一月廿三日附書面으로中華全國體育協進會沈名譽主任幹事의名義로岸日本體育協會長에게參加를要求하는뜻을正式交涉하야왓다그期日은來年八月二十七日로부터九月三日外지八日間上海에서開催하기로되고또는競技上二三의改正件에對하야懇請하엿다又今番의競技會에對하야는從來參加國外에印度로부터서도參加를切望하야義者에印度代表로한博士의名義主催國인中國에交涉이有하엿섯슴으로此에對하야도日本側의意見을要求하엿다더라(東京電報)

自動車顚覆되여 重輕傷者四名

―기생실코하동갓다가도라가든 자동차낭떠러지에서떠러지어― 河東牛峙의夜半慘事

경남사천읍내(泗川邑內) 대야자동차상회(大野自働車商會) 데류십오호차는 지난십일월삼십일에 리시로 하동(河東)을 갓다가 밤늦한시삼십분이나 되여 사천으로 도라오다가 하동쇠재(河東牛峙)라는 고개에 이르러 바퀴에 고장이 생기여 여러길되는 낭떠러지에 떠러지어 운뎐수와 지합하야 일곱사람중에 네사람의 중경상자를 내여 곳 하동읍내 대동병원(大同病院)에 입원치료하는 중이라는데 그가운데 미인한 사람은 입설을 닷치여 언청이가치 되엿다는바 부상자주소와 일홈은 다음과 가트며 자동차는 산산히 부서젓다더라(하동)

負傷者住所氏名
南海郡昌善面 南弄月 南順善(二五)(妓生)全治三週間
河東郡辰橋面辰橋市 李永宇(三七)(順善兄) 同上
泗川邑內 鄭玖錫(二四)運轉手 (三〇)同上

玄米機에重傷

술갑벌려다가

평북곽산신시가(平北郭山新市街)에 잇는 현미업 전평안상회(平安商會)를 빌여 건선천(宜川)인 백운무(白雲武)게 근식(桂根植)의 경영하는 공당에서 지난이일 오후한시경에 돌연히 공부(工夫) 한명이 중상을 입고 뇌진탕으로 생명이 위독하야 그곳 남산의원(南山醫院)에서 응급치료중이라는데 그내용을 들은즉 피해자는 안흥면삼단동(安興面三端洞) 홍귀범(洪貴範)으로 그전날에 대미(大米) 한말을 팔아 동모들과 술을 먹고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걱정을 들을가 하여 로동을 하야 보충할 게책이엇스나 그 긔계의 사용에 니숙지못한 탓으로 너머지는 찰나에 공교히 긔계의 피대(皮帶)에 옷깃이 감기워 머리가 깨여지고 다리가 부러젓는바 동공당은 작년 이때에 리긔몽(李萃夢)이가 이 긔계의 구조에 상하엿다더라(곽산)

咸陽에怪火

함양군휴천면 금반리(咸陽郡休川面金盤里)(일명양지말)에는 지난십일월이십사일 동리 박수명(朴壽命)의 집에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하야 이래 칠팔일간에 십여차이상에 달한다는데 불이 날때에는 집웅에서나 혹은 나무가리에서 발화한다는바 경관과 주민이 협력하야 엄중히 원인을 조사중이나 알수업다하며 주민은 극도의 불안에 싸혀 잇다더라(함양)

春川棄兒

일긔가 졸디에 몹시치운 지난이일오전 열시경에 춘천군동내면고은리(春川郡東內面古隱里) ... 주민이 ... 알수업는 ... 업서진자가 ... 하다더라(춘천)

郵自働車轢人

재작오일 오후아홉시 이십분경에 경성우편국 데이호우편자동차(運轉手 ...)가 우편물을 싯고 경성역으로 향하야 남대문통 오뎡목 팔십일번디의 압흘 질주할때에 엇던 중국인 남자가 그압흘 통과하다가 치이어 선혈이 림리한 가운데 혼수상태에 싸진 것을 즉시 『세부란쓰』병원으로 달어다가 목하치료하는중인데 생명에는 관계가 업고 후두부에 상처를 당하야 약이주일간의 치료를 밧어야 완치되겟다하며 주소성명은 아즉 미상하다더라

陸士中國留學生 廿四名連袂退學

긔관총련습은안식혀준다고 練兵小隊長排斥運動

동경륙군사관학교(東京陸軍士官學校)에 재학중인 중국인학생 데십팔긔생(第十八期生) 이십사명은 지난삼십일일에 진긔(眞崎)교당으로부터 전부퇴학처분을 당하엿다는데 그내용은 지난십일월이십일오전에 소총련습을 할즈음에 실행치안코 긔관총연습을 하겟다하며 소대장모의 행동이 학교측에 위반된다고 그와 가치 뎡 ... 전부퇴학하겟다는 뢰원을 하엿습으로 중국학생회 회당등이 극력 진무코저하엿스나 이래 출석치 아니하고 동경시내에 잇는 자긔네의 친구집으로 도라다니며 잠으 ... 아니하면 다하다고 그가 사직치 ... 학식힌 것이라더라(동경뎐보)

時計일흔宣敎師 主日에教徒取調

일반교도는크게분개

지난달이십팔일에 경북안동읍법상동(安東邑法尙洞)에 잇는 서양인 선교사 차모(車某)라는 사람은 자긔가 가젓든 시게와 만년필 한개를 책상에 두엇다가 일허버리엿슴으로 그가택수색을 하엿스나 아모 증거가 업슴으로 그 침의자로 자긔의 집에 가장 친절히 다니는 교도 박모(朴某)라는 녀자와 두사람을 자긔집에 불러다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고취조를 하는 한편으로 ... 엄중한 취조를 바닷스나 아모 증거가 업슴으로 ... 일반교도는 매우 분개한다더라(안동)

日人大賭博團

지난이일 부산행뎡(釜山幸町) 일뎡목 삼십륙번디 텬좌소팔(天座小八)집에서 일본인도박단 십여명이 잡혹하야 잇는 것을 부산서형사 복뎐(福田) 송본(松本)외 두형사가 발견하고 데포하려다가 일며 격투를 한후 일망타진으로 런부검속하야 방금 엄중한 취조를 밧는 중이라는데 그들의 일홈은 아래와 갓다더라(부산)

▲稻葉龍馬▲和田升松▲藤井京一▲北村米次郎外十九名

客月職業紹介

지난십일월중 경성부 인사상담소(人事相談所)의 직업소개와 취직률을 보면 소개수의 약오할룡부가 취직한 세음인데 구직자중에는 조도뎐(早稻田) 명대(明大) 출신 세명과 중학산업학교를 졸업한 자열아홉 사람이 구십삼명이라하며 작년동기와 비교하여 보면 칠십일명이 더 취직하엿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갓다

▲求人數三四二人▲求職數五二七、▲紹介四六一人▲就職數二五七人

牙山小火殺牛

충남아산군도고면신은리(牙山郡道高面新堰里) 이백사번디 김명실(金明實)의 집에서는 지난이일오후 네시삼십분경에 불이 이러나 기르든 소한머리가 타죽엇다하며 원인은 방을 짓다가 실화된 것이라는데 손해는 약륙십원이라더라(례산)

향도레차자내고을명물 (九七)

黔丹師의開山으로 七山海의燈臺

―신라금단선사가잇던명산으로 칠산바다의미려한풍광을차지―

◇高敞名物 禪雲山의風光

반만년의 찬란한 신역사를 동청 다른 고을에 지지안습니다 고래로 스나 곳곳이 고적이며 산천리의 로 유명한 귀암(龜岩)의 사기 곤수강산을 가젓스니 불갑이영 (沙器)와 반암(盤岩)의 제디(製紙)도 명물이며 방장포(方丈浦)의 긔관과 장연의 침행(長淵沈香)도 또한 자랑거리입니다 어데에 병풀이 업스며 어데에 자랑거리가 업스리가마는 우리 고창(高敞)도 그리처처 안코 또 풍경과 산불로 말하여도 ◇

이야말로 금강(金剛)의 아우될에 넉넉하답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코저 하는 것은 호남(湖南)의 거찰이며 풍광이 명미키로 이름놉흔 선운(禪雲)입니다 선운사는 신라검단선사(新羅黔丹禪師)의 개산(開山)으로 진흥왕(眞興王)시대의 법운사(法雲師)의 활동으로 그후 고려일대(高麗一代)에는 호남의 거찰이엿답니다 넘외 오래력사와 웅대한도 작이듬을 거니와 회병을 둘는듯한 수려한 풍경은 도솔봉(兜率峯)은 장엄하고 수려함이 선운의 대표뎍 정화(精華)이니 만장석봉(萬丈石峯)이 반공에 소소로 치고 가진 자래를 실컨 부린과 암첩석에는 쟁영한 천년로송이 락락하야 한폭의 그림을 그림주하답니다 청상(頂上)에는 도솔궁(兜率宮)이 잇서 세외(世外)의 천궁(天宮)을 보는듯한 늣김이 잇고 궁의 뒤로 터위삼고 올으면 오륙십인이 안즐만한 만월대큰반석(滿月培大盤石)이 잇고 천야만야한 곰흔 곳에 봉두암(鳳頭岩)이 솟아 잇답니다 ◇

선운이십사굴(禪雲二十四窟)의 하나인 봉두암(鳳頭岩) 압해 잇는 큰석굴(大石窟)은 신라진흥왕(新羅眞興王)이 위를 피하야 선운으로 왓슬때 초숙한 굴이라하야 일홈이 잇스며 도솔(兜率)의 서편으로 가면 바위 고룡문의 뒤로 올으면 칠산바다 봉용히 둘코 나갓다는 룡문이 잇 (七山海)를 중심으로한 서해바다(西海)가 속이 시원하게 압헤 터지고 석양(夕陽)이면 락조(落照)에 번득이는 칠보해색(七寶海色)이 또한 선운(禪雲)에 빼지못할 긔관이랍니다

投稿繼續受理 내고을명물투고

◇投稿者 高敞 徐致榮
◇薄謝 本報購讀券三個月分

◈天氣豫報◈ 曇小雪後晴
昨日正午 四、五 昨日最低 一七、八 昨日正午 四、五

귀혈부족과

신경쇠약치료에대하야 진귀한별소식

미독

전염되난내력과 단근적한비결?

림질

의가지수와그 치료의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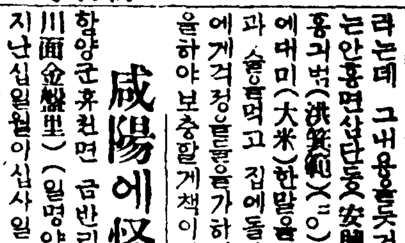
양긔부족

의무효면 백원진정

苗木 果樹 豫約募集 目錄無代呈 朝鮮開城 興林農園

모양잇고질긴고무신은 登錄商標 상평 商標 常平고무 京城黃金町一丁目 常平고무工業社 販賣

獨逸製高級腕卷時計 東亞日報讀者에限廉賣 示時正確 精密保證 特價 金六円 金七円 金八円 金九円



色白하여지는 美活 (미활) 后鹸 年末年始의 贈答에는무엇보다도이것이 第一重寶 本舖大阪 吉田久四郎商店

ClibPDF - www.fastio.com

四等米廢止保留

廢止反對의種種理由

大正十五年度產米標準查定會議는豫定보다一日延期하야各道擔出案의審議를終하고四日에議了하야目下各道當局과當業者의意見을綜合中인데就中本會議中의最重要案이라는四等米廢止問題에就하야는各道檢查所長이나當業者間에서나大論戰을거듭하엿지만은結局議論이歸一치못하야反對에優勢이엿슴으로今年은保留하고다시來年度의協議會에지繼續하기로되엿다그理由의主要된것은假令現在四等米의七分을三等米로上格하고調製乾燥를充分히하야三等米와遜色이업는程度로하드래도日本의需要者는이를認定치안코今後의三等米를從來보다品質下等의것으로取扱하야延하야는現在以下의市勢로取引하게되야從來의三等米도도리혀惡影響을밧는結果를招來할虞慮가잇고또一般으로時期尙早한것과鮮米取引側으로도最近急激增한四等米를廢止하야서는取引上非常한支障을來하게될터인즉當分存置하기를願하는希望도絶對한것으로又一面總督府當局으로서도各道當局及當業者가如斯한問題를提案하는것이尙早하다하야今年外지는保留할것이라더라

二等五十四圓五千二十二圓이라는데本年四月부터九月外지의販賣高는三千三百十三萬八千三百二十九斤에價格三十三萬八千八百二十七圓이고一方山東及關東州의輸入狀況을보면本年一月로부터九月外지鎭南浦及新義州에輸入된것이五二、五八、五○○斤價格五十一萬二千九百四十七圓으로輸入量도增加되엿다더라(鎭南浦)

仁川在米激增

本月四日現在仁川各銀行在庫數量을보면左記와如한데此를前週에比하면合格品二六、四五一叺無檢查品六七七叺이增加하엿더라

玄米	四斗入	四八、四七三叺
同	五斗入	一、一八四
白米	三斗入	一三○
正租		六、五九
同		五九、五五三俵
大豆	四斗入	四一、四叺

叺價暴騰

需給不伴으로

小豆	四斗入	一三三
同	五斗入	一四四
大麥	五斗入	二○○
小麥	四斗入	九四九
粉米	四斗入	五○○
同	七斗入	一、五五七袋
粟	七斗入	五二五
黍	六斗入	六一四
同	七斗入	一、二八七
糯米	五斗入	一一○叺
同	七斗入	四○三
外米	七斗入	一○○

叺의需給이相伴치못하야逐日暴騰을繼續하는傾向은旣報한바어니와最近은例年이면二十六七錢의것이五十錢이라는大非不知의暴騰을示하고더욱이漸次暴騰을取하리라고觀되는바그原因은本年의持越在庫品이極少한것과天候가順調로外米出廻가旺盛하야叺調製困難한事實과先하고또市勢의先下로產地가有利하게賣却하며輸出이旺盛한事等이더라

期米

前場頭重

(六日 仁川)

	當限	中限	先限
一節	三〇·〇五	三〇·五一	三〇·六九
二節	三〇·〇四	三〇·五五	三〇·六九
三節	三〇·〇四	三〇·四九	三〇·六五
四節	三〇·〇四	三〇·四九	三〇·六一
五節	三〇·〇五	三〇·四八	三〇·六二
六節	三〇·〇二	三〇·四九	三〇·六六
七節	三〇·〇〇	三〇·四九	三〇·七〇
八節	—	三〇·五一	三〇·七〇
九節	三〇·〇二	三〇·四八	三〇·六六
十節	二九·九八	三〇·四五	三〇·六五
前日前止	—	—	三〇·七一

休前三十圓七十五錢에稍强히는하엿는데今朝大阪初付가十三丁低付하야三十五圓六十錢을報하니當地는人氣依然頑强하야三十圓六十九錢에六丁低로初付한後에大阪二三節이六十八錢에稍히强化하엿스되當地는初付가를떠러진만치六十九錢同價에相持하다가大阪六十三錢一錢의無勢를보고서六十一錢에軟化하더니六의買物로六十六錢에反强하야七十錢에好轉할듯한際에大阪止價이六十一錢을報하야形勢軟調하야오로忽然히六十六錢에反調하야迷路에入한人氣로結局六十五錢에止하다

押目買로轉換?

現實賣는不安

前途供給不足의大事實이잇는것으로보던지또는阪仁共前月外지三期의鞘가逆順不一한狀態에잇든것이今新市發會되면서는先物은中限보다高하고中限은當限보다高한完全한順鞘로恢復한點으로보던지大體市勢는押目買로轉換한듯한觀이잇스나此將來高의理想은오랜時日이經過한後의일이오當場에現實이내리누름으로强派에서도只今부터思惑的買付를하고저하나其理想境이到來하기外지에金利其他모든費用을회여버기가어려울것을念慮하야無碍하賣進치못함으로서와가치바닥은밧치는듯하면서도終是仲惱的商狀을示한다그러하나產地出廻는最盛期를지난듯하야現物買氣가事實업지아니하나其現實事情에醉하야日下低迷하는것을買浴하기는不安한感이不無하다

商狀을演함으로人氣는次次離散하여따라서商況이漸漸寂寞해진다膠着保合에는波瀾分岐가胚胎한다는意味로볼時는今後에그만한興味를부칠수잇스되時節이强하니하고全然現實의威力이加重할뿐임으로快斷의騰落을수협히招來할것갓지아니함으로只今當中의大賣買物을가지고잇는便에서는다만焦燥의빗이잇슬뿐으로아무緊張味업시時日을보내는狀況이다

米豆餘墨

◇…只今仁取取引員의最古參者인今村氏는不遠에仲買業을고만둔다는所聞이잇다最初흘러먹은게로군

◇…同氏가이제고만둔다는것이內海氏의素비를내이고십흔게로군次次等을을보면年內에노리고이번에커우府協議員맛을본집에

◇…當地步調는七十錢臺를暫時엿보다가도문득六十錢臺에맛스러지는것을보면年內에머리를한번들어보지못하고말모양인가

◇…또六十錢臺에오면賣物이相當히殺到하는光景으로快斷의低落을뵈이지도못하니조차서팔맛도업다차라리逆轉的으로進退할步調인듯한걸

◇…步幅이너무도狹少한지라逆襲으로멤빈머야口文이나변변히쎄일수가잇서야지早晩에별수가나지아니하면正月마지할떡감버리도茫然하겟는걸

手形交換激增

十一月은枚數로第一位

全朝鮮手形交換高는下半期에入하야金額에잇서서七、八、九、十의四個月이모다激減한바十月에入하야稍增進을示하고十一月에入하야는依然枚數로今年에最高記錄을示하고金額으로는上半期第二位인四月에匹敵하야去來繁忙을示한바即內譯은如左

(單位枚、千圓)

	枚數	金額
一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手形交換週報

=自十一月二十九日至十二月四日

	枚數	金額(千圓)
元山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比前月增	[illegible]	[illegible]
小切手	[illegible]	[illegible]
送金爲替手形	[illegible]	[illegible]
約束手形	[illegible]	[illegible]
政府預金小切手	[illegible]	[illegible]
郵便爲替證書	[illegible]	[illegible]
公債償務同利札	[illegible]	[illegible]
雜證票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比前週增	[illegible]	[illegible]

粟輸移入高

客月中의增加

十一月中粟의輸移入高는六萬九千五百六十四石으로前年同期에比하야八千二百八十七石增加이라더라

九個月間 一億萬斤

廣梁灣의增鹽

關東州廣梁灣一帶에在한專賣局所有의大鹽田의產鹽은今年度期早魃로因하야稀有의大豐作으로一月부터九月外지의生產額은九千八百八十七萬八千餘斤에達하야昨年今年同期生產額五千九百十三萬二千八百斤에對하야約倍額의增收로平均價格六十五萬一千九百五十五圓인바此亦昨年分全價格五十九萬一千四百八十一圓에比하야九萬餘圓의增加이라는데生產品의等級은如左하며

特等鹽	八九二千斤
一等鹽	二一、一九二千斤
二等鹽	七六、八四九四千斤

此에對한平均價格은

特等鹽	八千九百二十圓
一等	九萬八千十三圓

全朝鮮手形

交換高의增加

京城手形交換所에서調查한十一月中全朝鮮內手形交換高는二十一萬五千十四枚九千四百七十七萬千四百八十一圓에比하야六千餘圓으로前年同期中에比하야一萬七千十九枚四百二十七萬五千餘圓의增加로此內譯은如左(單位千圓)

京城	[illegible]	[illegible]
釜山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大邱	[illegible]	[illegible]

大阪在米增加

十一月末日現在大阪市中在米高는三十萬八千三百四十八石으로前月에比하야八萬八千三百八十四石增加이며右中日本米는四千九百七十七石朝鮮米八萬四千五百七十一石으로모다增加이더라(大阪電)

鮮銀副總裁問題

鮮銀副總裁後任에對하야는日銀系의人士가만히問題에올흐나日銀系에서選擇할事情에切迫하지안코寧히總裁는鈴木總裁의意中의人士를就任식히는것이妥當하다하야其候補者에는頭取片山義勝氏가推薦될模樣인바大藏當局이容認할는지아직疑問이라더라(東京電)

棉花時勢의研究

暴落原因과對策 (五)

經濟學士 SC生

日本은金貨國이요印度는銀貨國이라따라서一留比를六十六錢으로잡은故로兩國의貨幣間에一定한法定平價를定할수는업스나大概印度의十五「留比」를日貨約十圓으로假定하면前記米棉의「換算比較」時와가치(印棉)一캔데一價格의一「留比」의騰落은(印棉)百斤의日貨換算價格의十錢의騰落에相當하다 換算하면一캔데一(印棉)의價格에서一留比가오르거나나리거나하면百斤의價格에서는十錢이오르고나리고한다는말이다 따라서前者에서二三五…「留比」가暴落하면後者에서는二三五…十錢이騰落한다 前記印棉時勢를보고百斤價格의騰落을料하는데必要한것이니 記憶할必要가잇다 이제實例를들면一무토一치百斤價格을日貨로換算하면二十七圓八十一錢二厘四毛다 前보다一留比騰貴한二五…留比時에一同一한爲替時勢에一캔데一價(一留比가六十六錢)에依하야一(印棉)百斤價格을換算하면二十七圓九十一錢四厘六毛다 由此觀之면一캔데一(印棉)一캔데一價格의一留比의差가(印棉)百斤價格의約十錢의差異를生함을알것이다 故로前記印棉時勢中에十錢安이니二十錢安이니記載한것은 印棉一캔데一價格이前日에比하야一留比가나려지면印棉百斤價格으로는十錢이차지고 캔데一價格으로二留比가나리면百斤時勢로는二十錢이차진다는表를밧는다 一일時에一印貨十五留比가約十圓(注意)註一에서는米國市場에서商買되는米棉時勢를또註二에서는印度市場에서商買되는印棉時勢를說明햇다故로日本市場에서商買되는米棉時勢와印棉時勢는輸入資金의金利運賃保險料等의關係로米國의米棉時勢와印度의印棉時勢보다는恒常비싸다는것이다또한米棉의米日兩市場間의時勢의差異와印棉의日印兩市場間의時勢의差異가幾何인가하는데恒常注意할것이다

(三)小供給國은恒常大供給國의影響을밧어利害를여도잇는代에에實害를보는때도만타 最大供給國인米國棉花가凶作이면 埃及、印度、支那等이豊作이라도棉價가騰貴하는故로 此等小供給國은豊作으로因한棉花增收에加之棉價騰貴의二重의好影響을밧는다 이와反對로米國棉花가豊作하고殘餘의小供給國이凶作이면小供給國은減收落價라는二重의打擊을밧는다 日本米와朝鮮米와의供給關係가正히이와恰似하니讀者는一考하라

案外閑散의

…新甫商勢

前月末에支離히保合商狀을持續하엿슴으로新甫를마지한後에는어데로던지分岐될듯하다하야强弱共히新市에乘出하기를期約한便이多하엿는데發會以後에별서五六日의時日이지낫스되當地는三十丁臘落을示現치못하는腹

小捌主義得策

新甫가發會한지日淺할뿐아니라압헤大決濟期인年末을控한지라多少波瀾이相伴할듯하다하야一般의期待하는바는尋常치아니한모양인데實際步調는案外平凡하니突然히廣幅의往來가잇슬줄로생각하는것이當치아니할듯하다市勢를크게보는便으로말하면强化하는곳에 飛付買를敢行하고低落하는곳에追擊을試하는光景이나實際步幅이狹少한까닭에누구나着手만하면곰흔감을사게되고쌋갑에팔게되야月初부터「자부쓰기」하기에똑알마즌形便인즉當初바터小捌主義를取하야步調가아래로分岐되는듯한觀이有한때에는遲滯업시買拾하고또安心하고살만할것가치强化하는곳에는逆襲賣退하는策戰을取함이오히려得策일듯하다

後場保勢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單位石)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帳入價格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賣買高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合計[illegible] 本期總數[illegible]

各店倭合

中限◇賣方[illegible] ◇買方[illegible]

先限◇賣方[illegible] ◇買方[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五圓七十六錢

東京期米

前場 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兵庫期米

前場 付價 [illegible] 止價 [illegible]

下關期米

前場 付價 [illegible] 止價 [illegible]

桑名期米

前場 付價 [illegible] 止價 [illegible]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價	今日止價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六低
大阪	[illegible]	[illegible]	一四低
東京	[illegible]	[illegible]	一○低
兵庫	[illegible]	[illegible]	五低
下關	[illegible]	[illegible]	一低
桑名	[illegible]	[illegible]	一低

◎仁川正米市勢

㊁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㊃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正租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各地延取引

釜山 賣買高 [illegible]石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前場 十二月末 一月中 一月末 一節～八節 [illegible]

大邱 賣買高 [illegible]石 穀良 [illegible] 神力 [illegible]

前場 十二月末 一月中 一月末 一節～六節 [illegible]

群山 賣買高 [illegible]石

株式

(京取 六日)

前場軟味

▲京取保價▲鍾新一圓十錢低▲大新保價▲久原一圓三十錢高

阪地新甫軟勢

阪地新市有望의豫想이잇섯스나今朝에는期待背馳로大新阪付는百一圓七十錢後軟退의步調임을보고當地도百一圓七十錢付價後軟退하고阪止一圓이나當止는一圓三十錢으로三十錢의上鞘를示하엿스며京取는二十錢高인二十九圓七十錢付價後反軟하야九圓五十錢大引으로保價이엿고鍾新은阪地軟勢를作하야當地百四十二圓步調後二圓棄割의一圓八十錢大引이엇스며久原은洪店의前物로百十四圓付價의上鞘一口가잇섯다

大新百圓割難

大新은昨今仲氣가微微하야百圓臺接近의下勢味가잇서當地의買氣를挫折하는傾向으로今朝에도도百一圓臺의彷徨으로保勢를支持하엿다그러나一般仕手는年末氣分을되여此送低價를押目으로보고買拾하라는兆도잇는바何如間阪地松井의東新賣大新買로大新의壓迫材料가되나松井側에反抗的氣分이濃厚하야그影響이薄弱하리라는點으로보아大新百圓臺割은至難할듯하고萬一百圓이깨여질때에는그反動的幅位가그만큼大하리라는觀測이잇다

後場續落

東新引際瓦落

▲京取十錢低▲鍾新一圓低▲大新八十錢低

主要株取組高

◇大新(賣)大林一二○洪五○正崎二、○○○田友六○成淸二七○新田二、六三○定岡一四○(買)大林一○○白井二一○洪三一○金龍六一○古川五○松山六○田道七二○金秀五○○白樂三○市川五九○

◇京取(賣)大林一一○正崎一、三四○古川二八○成淸一七○新田二、九五○定岡二○(買)白井一一○洪五○金龍二○○松田有六八○京龍二、四九○白樂一○市川六一○

◇鍾新(賣)古川四○成淸七○新田二五○定岡九○(買)大林一四○白井三○田友一四○京證二○松山二○定岡一○田道五○白樂五○市川一○○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大新 [illegible] ◇鍾新 [illegible] ◇久原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大新 [illegible] ◇鍾新 [illegible] ◇久原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大新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 [illegible] ◇鍾新 [illegible] ◇久原 [illegible] ◇東新 [illegible]

賣物絶對禁物

某硬派買煽

近者環境事情이不透明하고그中爲替高의威脅과綿絲低가一般에큰不安氣分을助長하는一面金融緩漫으로年末決濟無事豫想과今後政府積極策期待로春高入氣를抱持하는關係上年末市勢가잇슬것이當然한즉旣述과갓치十日以後로부터는人氣가急轉하리라고某硬派는買煽한다

京取無材料?

京取는今朝寄付에大原買進으로二十錢高인二十九圓七十錢을示하엿스나大新低落과賣物薄으로自反落의軟調가잇섯는바이미八朱配當에對한影響도엿섯슴으로目下에合倂問題外에는自體의材料가업는즉今後는全然大新高低에追隨될뿐이라고본다

久原尙波瀾含

「當地煎物로上鞘

阪地의久原은아즉도波瀾含의商情으로今朝阪付百十二圓七十錢으로七十錢이昂騰하엿다가反落하야百九圓五十錢低價가잇섯고다시反騰하야波瀾의商狀을示하엿스나當地는寄付에洪般柱店의買建한煎物百十四圓付價로大上鞘의一口가잇섯다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二、一六○枚 累計 七、○一○枚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連取 [illegible] 日石 [illegible] 鮮紡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綿絲 [illegible] ▲細布 [illegible] ▲粗布 [illegible]

◎大阪三品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前場付價	止價	後場付價	止價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前場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現物武州格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枚數 [illegible]枚 金額 [illegible]圓

◎朝鮮銀行券

四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金利

四日

	東京	大阪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越月物	[illegible]	[illegible]
六十日物	[illegible]	[illegible]
普通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一錢單位)

◎海外經濟

六日着

倫敦銀塊	二四片十六分九
紐育銀塊	五二仙八分七
米綿	三十五錢高
印綿	四十五錢低
英米爲替	四弗八五仙
스털	一四九弗四分三
아나콘다	四七弗四分三

麻衣太子【下篇】

春園 作 丹谷 畵

【五十五】

오호경순 (三)

그러나 왕건이 서울에 오지기번서한달이갓갑고또왕건이하랴던일도 다하엿다。하라던일이란별것이아니오 칫재신라의 힘을알고둘재 신라人조뎡의 대관들의맘을 사고셋재 신라왕이나대자의 맘을사로잡는것이엇다。이일은 한달人동안에 다되어버렷다。

처음왕건이 서울에 온다는말을들을때에는 왕이나 조뎡제신은반다시 왕건이무슨 어려운분네를쏠어내려니하야 그것을 두려워하엿다。그러나 왕건은임가시집에온 손님처럼、뜨구경온한유객처럼、그저유쾌하고 놀고첨답게 니야기할뿐이오 국사에대하여서는 아모러한 말도하지아니하엿다。그는마치련하사에 대하여서는 아모야심이 업는것가탓다。

이것을보고 더러는 왕건이유素한것이라고 하엿스나 왕을며리로하야 여러대관들은 왕건의덕과정의를미더워리고 말앗다。

락랑공주는 아조왕과 왕후에게맛겨버리고 임쳐찻지도 아니하엿다。공주는항상 왕후와가치잇섯고 그때문에왕은컨에엄시 왕후궁에 자조출입하엿다。

왕은태자가 락랑공주에게 갓가히하기를 엄금하엿다。왕자는여전히 실신한사람으로 머릿안에서 이리저리로그닐고 각금노래도부르고 울기도하엿다。(사더날에는 밤이깁도록 어원(御苑)속으로 그니는모양을보앗다。

하로는초어스름에 태자가 월정교(月精橋)우흐로그닐다가역시궁녀의 옹위를바다 월정교로오든 락랑공주를맛낫다。태자는돌로련못을 아로새인란간에 기대여 외면하엿다。

궁녀들은 그것이 태자인줄을알고 합장하고 허리를굽히며、

『동궁마마!』

하고불렀다。락랑공주도 합장하고、

『동궁마마 누이를몰라보시나닛가』

하고 고개를숙엿다。궐내에서는 왕과왕건이 형네지의를 매젓슴으로 이러케 촌수를차진것이다

태자는 할일업는듯이 고개를돌려 락랑공주에게 답례하고、

『락랑공주시니잇고?부왕이근일에 새로촌척(親戚)을 늘이시엿다하기로 나는그사람을 알고』

하엿다。

락랑공주는 태자의말뜻을 알아듯는다。태자는자긔를미워할때나다반드시 비웃는눈으로 자긔를보고 또외면하엿다。그러할때마다 공주는 괴로웟다。그것은공주의눈에태자가 말할수업시 봉상함을 새닷고또알수업는힘이자긔의 맘을 태자에게로쏠어부치는것을 새다른 때문이다 그것은다만 오라비업시 자라난처녀의 외로움뿐만아니엿다。

락랑공주는 태자가잇는 서울을떠나 고려로 돌아갈생각이업섯다。왕이자긔를 귀해할사록왕에게대하야서는첨첨반각이생기고태자가자긔를배척할사록태자에게대하여서는더욱애착하는생각이낫다。그래서비록 잠시라도태자의낫출대하기를원하엿고도더오래가치하기를원하엿다。

공주는태자의 겻흐로 한거름갓가히가며、

『동궁마마사흠을 지나면고려로돌아간다 하나이다』

하고왕건에게서 들은말을 태자에게전하엿다。

태자는한거름 공주에게서 비켜서며

『사흠후에가신다?』

하고놀라는빗을보엿다。

『아이사흠후에。사흠후에는북방나라고려로아직버들는도안트는고려로』

하고공주는슬픈드시한숨을쉬엇다。

『오늘밤에떠나시더면 조흘것을사흘안에 또무슨 흉한일이생길줄알고──사흠은멀어라、사흠은멀어라』

하고몸을돌려 두어걸음 가다가태자는다시 돌아오며、

『공주여、아비를살갈지어다어느아비나아비를 살갈지어다』

하고 유산히 공주를바라보며

『공주、후생에라도망국하는왕의아들로 태어나지말음것이、텬하에 욕심둔왕의딸로도 태어나지말을것이 ──나를형이라부르시니부디이부탁 닛지마올것이』

하고또몸을돌려다리커편으로건너가려한다。

社告

一、名稱 錦山支局

一、位置 錦山郡錦山邑

一、區域 錦山郡一圓

一、職氏名 支局長 金正鉉 記者兼總務 咸益祚

右와如히支局을設置하얏삽기兹에社告함

東亞日報社

곳아름다운 얼골이되는

백색미안수 白色美顔水

도곡화장품연구소 창제의……신식백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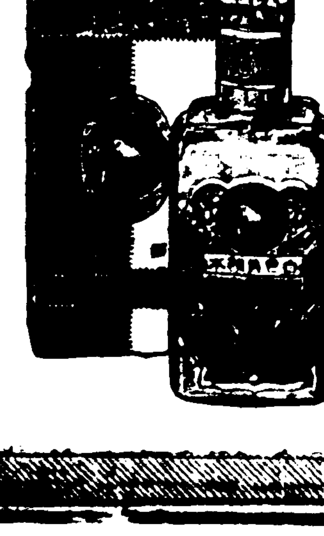
▲이분으로화장하시는분은누구나말할수업는아름다운얼골이되십니다

▲동경이나대판에서는상중류부인들에게이분이만히류행하는중임니다

연분이절대로업는안전한신식백분

▲녯날분은연독의무서운것을최근의과학으로잘알게되엿슴니다

▲백색미안수는내무성위생시험소에서도무연백분으로증명되얏슴니다



發賣元 東京·大阪 桃谷順天館

▲백색미안수는상회점이나화장품점에잇소

ClibPDF - www.fastio.com